

2016년
제13기(하계)
대학생 지식봉사(Camp)
GUIDE BOOK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한국장학재단 Tel. 1599-2290 www.kosaf.go.kr

[나눔지기(멘토)용]

korment

제13기(하계)
대학생 지식봉사(Camp)
GUIDE BOOK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지식봉사사업은
대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 리더십 배양에
기여하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능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2016년

제13기(하계)
대학생 지식봉사(Camp)
GUIDE BOOK

2016년 대학생 지식봉사사업 문의처

- 유선 : 02-2259-2059, 2060, 2061
- 메일 : mentoring@kosaf.go.kr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sbongsa
- 커뮤니티 : http://cafe.naver.com/jsbongsa



CONTENTS_



chapter 01.	한국장학재단 소개	
	1. 한국장학재단 소개	4
	2. 교육기부사업부 멘토링 사업 소개	8
chapter 02.	멘토링의 이해	
	1. 멘토링이란?	12
	2. 나눔지기란?	16
	3. 지역아동센터란?	17
chapter 03.	대학생 지식봉사 사업 소개	
	1. 대학생 지식봉사전?	20
	2. 사업목적	21
	3. 사업내용	22
chapter 04.	나눔지기 안내사항	
	1. 나눔지기의 역량과 역할	26
	2. 커뮤니케이션 기술	29
	3.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방법	30
	4. 멘토링 유의사항	33
chapter 05.	활동 가이드라인	
	1. 멘토링 진행 요령	36
	2. 프로그램 사례	37
	3. 10문 10답	57
	4. 우수사례	75
chapter 06.	FAQ	

chapter 01.

한국장학재단 소개

1. 한국장학재단 소개
2. 교육기부사업부 멘토링 사업 소개



01. 한국장학재단 소개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소중한 인재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한 자원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배경

-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국가 장학사업 강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됨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09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중)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인하 요구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으로 한 단계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필요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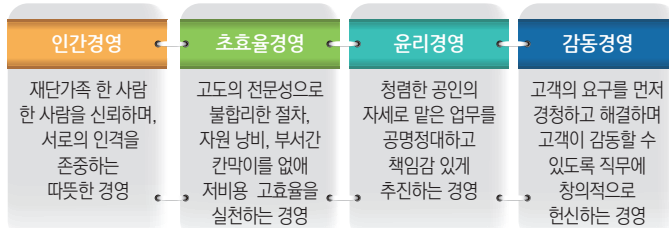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주요업무

- 학자금대출(돈돈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체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운영

4대 경영방침



핵심 경영가치

재단 슬로건인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와 기관장 철학인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 가치를 함축하여 “4C Servant”를 핵심 경영가치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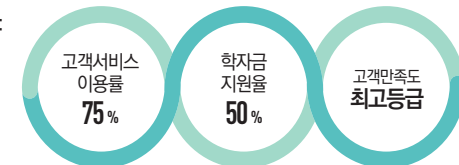


경영목표 및 전략

“누구나 소중한 인재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한 자원을 나눈다.”

VISION :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비전목표 :



중기 전략 방향	고객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제 정착	학자금지원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나눔 봉사 역량 강화	성과 중심 경영기반 고도화
전략 과제	- 학자금의 안정적 지원 - 학자금지원 서비스 개선 - 대학생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	-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모니터링 기반 조성 - 학자금 상환관리 강화 -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 나눔봉사 프로그램 운영기반 구축 - 학생종합복지 서비스 체제 구축 - 고객의 사회적 책임 수행 지원	- 고객중심 서비스 체제 구현 -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제고도화 - 과학적 업무수행 기반 조성 - 발전적 생산적 조직문화의 정착
핵심 경영 가치 (4C)	CREDIBILITY 신뢰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뢰경영	CREATIVITY 창조 역량강화를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	COMMITMENT 헌신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COLLABORATION 협력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

4C SERVANT

01. 한국장학재단 소개



연혁



2. 교육기부사업부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한국장학재단의 인재육성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기부사업부에는 대학생 지식봉사 외에도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회지도층 나눔지기의 지혜와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 목적

우리 사회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석학, 명사, CEO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지닌 연륜과 지혜의 가치를 우수한 미래의 리더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꿈과 열정,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배움과 나눔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 참여대상



기업 및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회지도층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활동기간 : 매년 4월 ~ 11월

● 주요활동

- 멘토링 프로그램 : 정기적으로 팀별 멘토링에 참여하고 폭넓은 특별활동(팀별 야외활동, 문화체험, 기업탐방 등)과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인재로 성장
 - 팀별 멘토링, 연합 멘토링, 특별활동, 봉사활동
- 리더십 프로그램 :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강과 모의면접,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짐
 - 코멘트데이, 리더십 콘서트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신뢰 · 소통 · 창조의 인재상에 걸맞은 역량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 사이버아카데미(10회), 역량진단(2회)
- 인재추천제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해 나눔지기의 인재추천서를 활용한 우수 대학생의 사회진출 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

● 목적

다문화 및 탈북가정 배움지기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대학생 나눔지기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

● 주요활동

-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연간 120시간 내의 멘토링 진행(연 최대 450시간)
- 집중적인 멘토링을 위해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1:1 매칭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학습지도 및 언어능력 지도
- 배움지기 교우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상담 등 멘토링 진행
- 사업기간 : 매년 3월 ~ 다음해 1월

● 참여대상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시 ·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추천을 받은 초 · 중 · 고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더 멋진 세상을 꿈꾸는 따뜻한 나눔

● 목적

대학생에게 지식과 경험을 근로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정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지식 나눔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활동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사업기간: 매년 3월 ~ 다음해 1월

● 참여대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대학의 재학생



근로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의 초 · 중 · 고교생 및 학교 이탈 청소년 우선 권장

● 지원 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 9,500원)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활동자에 한하여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기회 제공(재단 이사장 명의 상장 수여, 최우수상에 한함)

chapter 02.

멘토링의 이해

1. 멘토링이란?
2. 나눔지기란?
3. 지역아동센터란?



1. 멘토링이란?



멘토링의 유래

멘토링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의 이타카 왕국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한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보살피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Mentor)였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터에서 돌아오기까지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면서 상담자로,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구도 되고

선생님이면서

상담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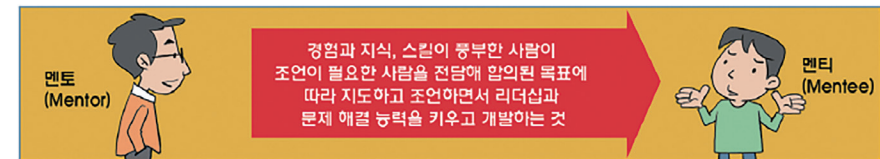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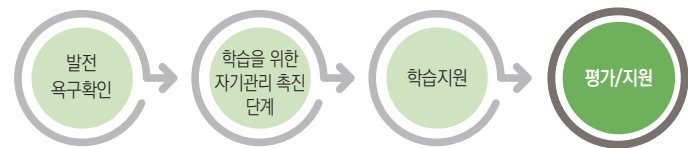
아버지도



멘토링이란?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스킬이 풍부한 사람이 멘토(Mentor)가 되어 조연이 필요한 사람인 멘티(Mentee)를 전담해 합의된 목표에 따라 지도하고 조언하면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멘토링의 과정은 멘토가 멘티(또는 프로테제)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멘토의 인품과 역량을 발휘하여 멘티의 인품과 역량을 개발하는 쌍방향 인재육성 인간관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멘토링이란?



나눔지기(멘토)와
배움지기(멘티)는
누구인가?

나눔지기(멘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립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방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사람 (스승, 지도자 역할)



배움지기(멘티)

나눔지기에게
상담이나 조언 등을
받는 사람



멘토링으로
부터 얻게 되는
혜택

멘토링은 나눔지기과 배움지기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눔지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배움지기들에게 전해주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유산을 남기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배움지기는 먼저 인생을 살았던 나눔지기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01

- 나눔지기과 배움지기는 자신의 (잠재)능력 및 장점을 깨달을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자기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02

- 다양한 계층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듣고 질문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동료와 대화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3

- 목표 달성 또는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움지기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나눔지기는 자신의 배움지기가 성장하는 과정과 결과에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04

- 개인의 인생과 경력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장래계획에 대한 실제적인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의
필요성

- 멘토링은 배움지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나눔지기는 배움지기의 성장을 위해 배움지기가 새로운 환경, 공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지기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 배움지기가 정신적인 도움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나눔지기는 배움지기에 확신과 용기를 주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며,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배움지기는 나눔지기의 성품과 역량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움지기가 세운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경험 많은 나눔지기의 조언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나눔지기란?



나눔지기란?

- 멘토링은 배움지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나눔지기는 배움지기의 성장을 위해 배움지기가 새로운 환경, 공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지기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 배움지기가 정신적인 도움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나눔지기는 배움지기에 확신과 용기를 주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며,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배움지기는 나눔지기의 성품과 역량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움지기가 세운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경험 많은 나눔지기의 조언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나눔지기의 정의



- 나눔지기(멘토)는 함께 뛰는 코치가 되기도 함
- 의욕을 심어주어 성장을 돕는 사람

멘토상의 예

멘토상&멘토비전선언문

-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지자
- 인생의 안내자
-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대상
- 목표나 진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자
- 중요한 선택을 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3.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 지역아동센터란?

-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이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 기타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취약계층, 맞벌이 등)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일상 및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도록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아 주는 서비스
-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chapter 03.

대학생 지식봉사 사업 소개

1. 대학생 지식봉사란?
2. 사업 목적
3. 사업 내용



1. 대학생 지식봉사란?



대학생 지식봉사는 대학생이 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진로상담, 예체능 창의활동 등의 멘토링 방학 캠프를 진행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2. 사업목적

대학생이 '나눔지기' 역할 수행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전공·인성·창의성·인간관계 등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초·중·고교 학생에게는 비용부담 없는 학습지도 및 멘토링으로 공정하고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눔지기** : 봉사활동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대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 리더십 배양에 기여
- 배움지기** :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 제공
- 정부 및 사회** :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사회적 재능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재단** : 수혜자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사업 차별화 도모



3. 사업내용



참여대상

- **나눔지기(멘토)** :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립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사람 (스승, 지도자 역할)
- (참여대학) 참여가능 대학*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
* 업무협약 체결 대학
- (수혜기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VMS · 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중 신청기관
* 미등록기관도 관리 담당자 지정 시 신청 가능
- (나눔지기) 사업 참여 대학 소속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4,200명 내외
- (배움지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재학생

활동내용

- 교과목 학습 지도, 진로·고민 상담 및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등 저소득층 가정 배움지기를 위한 맞춤형 방학 캠프(4일 이상)
- (특성화캠프) 예·체능 및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활동을 체험하는 캠프
- (어울림캠프) 배움지기 맞춤형 학업집중 및 진로상담 캠프
- (KOSAF캠프) 국가우수장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소외지역 대상 캠프



운영기간

- 연 2회
- (하계) '16. 7월 ~ 8월
- (동계) '16. 12월 4주 ~ '17. 2월 3주

활동장소

구분	장소
유형1	수혜기관 근처 유휴시설 이용 등 수혜기관 소속 지역에서 개최
유형2	대학 기숙사 이용 등 대학교 소속 지역에서 개최
혼합형	유형1 및 2에 속하지 않는 캠프 가능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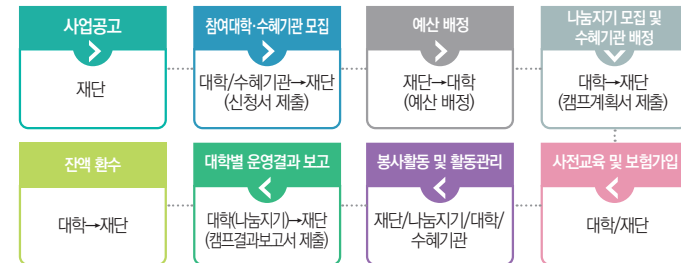
활동시간

- (4~6일) 최소 30시간 이상
- (7일 이상) 최소 50시간 이상

활동완료 나눔지기 지원 사항

- 활동완료 나눔지기 지원 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금 지원
- 우수사례 공모(수기, UCC, 포스터)·시상을 통한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배움지기 선발 시 우대
- 재단 이사장 명의의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재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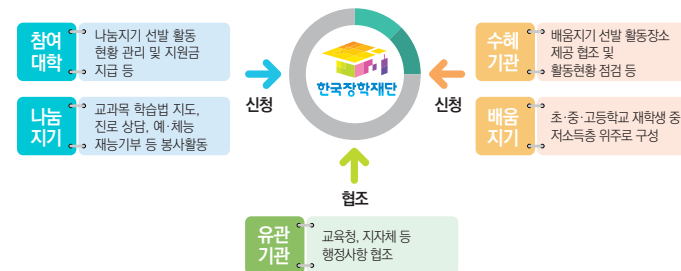
운영 절차



참여주체별 역할

대학생의 창의적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봉사활동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사업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 활동지원금 지원 및 활동확인서 발급



chapter 04.

나눔지기 안내사항

1. 나눔지기의 역량과 역할
2. 커뮤니케이션 기술
3.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방법
4. 멘토링 유의사항



1. 나눔지기의 역량과 역할



나눔지기의 역량

나눔지기가 효과적인 학습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역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멘토링 준비는 나눔지기가 자신의 학습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배움지기의 학습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 중시

관계의 증대는 배움지기와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배움지기가 자산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고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능숙하게 닦는 것으로,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료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의사 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여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멘토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또한 다른 사람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 (말하는 배경, 감정, 성격, 내면에 담긴 뜻)를 포착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려

멘토링 관계에서 응원으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영감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촉진

촉진은 배움지기가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주로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합니다. 학습자와 학습의 계획, 목표 설정, 실행, 평가에 관여합니다.

목표 설정

목표의 달성은 멘토링 과정의 존재이유입니다. 배움지기가 실질적인 목표를 투명화하고, 명확히 하고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안내

나눔지기는 안내자입니다. 나눔지기는 길을 개척하고 배움지기가 이제 막 보고 배우게 될 것을 준비시킵니다. 안내자는 또한 초점을 유지하고 체류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문제 해결

문제해결은 학습자를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지기는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그러한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나눔지기가 할 일입니다. 나눔지기는 문제 해결 전략에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눔지기의 역할

1. 배움지기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

- 지도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보 및 전달
- 공부의 이유와 방법 및 동기부여

2. 배움지기의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조연자

- 학교생활 및 입시를 먼저 겪은 인생의 선배
- 선생님, 부모님, 또래 친구들과 나눌 수 없는 지식과 경험, 생각을 나누는 언니(형)이자 '나이 많은 친구'

3. 배움지기의 거울이 되어 주는 롤모델

- 대학생이 되면 닮고 싶은 롤 모델
- 대학 및 사회생활의 간접적인 체험

배움지기가 바라는 나눔지기

1. 성실한 나눔지기

- 약속 준수, 진실한 말 등을 통해 배움지기에게 긍정적 태도 공유

2. 항상 준비하는 나눔지기

- 수업 10분 전 도착, 수업 내용 준비 등 지도자로서의 태도 공유

3. 배움지기와 교감을 이루는 나눔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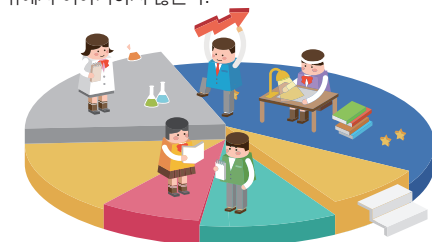
- 적극적인 자세로 배움지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4. 재미있는 나눔지기

- 배움지기의 수준을 파악하여 눈높이 맞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지도

대학생 지식봉사에 임하는 자세

- 배움지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 배움지기와의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
-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하며 불참하게 될 경우 대학과 수혜기관에 알린다.
- 멘토링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한다.
- 멘토링 활동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수혜기관 선생님의 승인을 받는다.
- 멘토링 중에 나온 이야기는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1. 나눔지기의 역량과 역할



나는 어떤 나눔지기(멘토)가 될 수 있을까?
나눔지기 선언문을 작성해보자!



〈나눔지기 선언문〉

작성해보기

예 : 나 홍길동은 00초등학교
배움지기 아이들에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형으로써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눔지기가 될 것이다!

2016년 6월 25일
대학생 지식봉사 나눔지기
홍길동

2. 커뮤니케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느낌
말하기

생각 X 느낌 O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함.
느낌을 생각으로 누를 때 에너지 감소 어릴수록 느낌보다는 생각을 말함



공감하기

공감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해준다.
이해, 수용(언어적 표현, 침묵의 표현, 신체적 표현)
정서타치 but 객관성은 유지



지각
확인하기

자신이 들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마음을 이해해보고 자신의 말로 재정리하는 것
따라 하는 것과 내용을 재정리하는 것의 차이

대화의 12가지 장벽

명령, 지시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려 어떻게 하라고 말한다. "불평 좀 그만 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경고, 주의, 위협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걸!"
훈계, 설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한테는 늘 공손해야지."
충고, 해결책 제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다른 친구들과 사귀면 되잖아.", "대입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사실, 논증, 정보, 자신의 의견 등으로 설득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내가 어릴 때는..."
칭찬, 동의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동의한다.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넌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어."
조소, 모욕	창피를 주고, 꼬리표를 붙인다.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해석, 분석, 진단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분석해서 말해준다. "시험을 잘 못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니?"
달래기, 편들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축소시켜 말한다. "내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걱정하지마, 잘 될 거야.", "넌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하기만 하면 잘 될 거야."
탐문, 질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캐낸다. "왜 학교가 싫어졌는데?", "대학에 안 가면 뭘 하고 싶은데"
비위 맞추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비위를 맞추거나 초점을 흐린다. "잊어버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축구부는 재미있니?"

3.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방법



① 온라인 멘토링 홈페이지(<http://www.mentoring.kosaf.go.kr/>)에 접속합니다.



- 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ID와 PW를 입력하고 사업을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① 상단의 '온라인 학습' 탭을 클릭하고,
- ② 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방법



5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및 이수 확인 | [나눔지기(멘토)용]

① 강의신청 후 마이페이지-수강중인 강의에서 동영상 시청합니다.

6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및 이수 확인 | [나눔지기(멘토)용]

① 강의 수강여부는 마이페이지-수강중인 강의에서 가능합니다.
② 모든 강의를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진도율이 100%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멘토링 유의사항

안전관리

- 활동 장소 주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 병원 등의 위치를 숙지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차량 이동 시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 망치의 위치를 숙지합니다.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을 구비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 사전 협의된 공간을 벗어난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수혜기관 선생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 비상연락망(학부모, 기관담당자, 대학담당자 등)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 활동 전 배움지기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합니다.

일정관리

- 약속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도착하여 활동을 준비합니다.
- 약속된 일정을 준수합니다. 단, 부득이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즉시 수혜기관 선생님과 재단에게 알리고 이후 일정을 협의하여 약속합니다.

활동태도

- 배움지기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웃차림과 언행을 바르게 하며, 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 특정 배움지기 학생만 편애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 배움지고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으며, 일단 한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 배움지가 불성실 하거나 나눔지기에게 불순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행동을 교정하고 직접적인 체벌이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 학습지도 시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교과목 지도보다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노력합니다.
- 배움지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수혜기관 선생님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합니다.
- 배움지고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SNS 등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배움지기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등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숙소점검

-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급약품 및 이동 통로나 비상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 합니다.
-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화기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 예방

- 포옹, 입맞춤 등 육체적 접촉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음란한 사진,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성적 굴복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chapter 05.

활동 가이드라인

1. 멘토링 진행 요령
2. 프로그램 사례
3. 10문 10답
4. 우수사례



1. 멘토링 진행 요령



시작

시작 후 10분 정도는 배움지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사 등을 나눕니다. 단, 배움지기의 기호를 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후 10분 정도는 배움지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사 등을 나눕니다. 단, 배움지기의 기호를 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

교과서 학습 지도 :



수업 시작 전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점검하고, 이번 시간 목표에 대해 알려줍니다. 내용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영문법 관련 팝송 배우기 등) 단, 흥미유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합니다. 배움지기의 수준에 맞추어 지도하고, 단순 문제풀이보다는 문제 푸는 원리와 전반적인 학습방법 등을 지도합니다.

고민 상담 등의 멘토링 :



배움지기가 고민을 상담할 때는 잘 들어주시고, 자신의 잣대로 배움지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배움지기가 '자꾸 딴 생각도 나고, 놀고 싶고, 공부가 안 돼요' 라고 할 때 '나는 그래도 꼭 참고 공부해서 대학 갔어. 너도 참아'라고 하기 보다는 배움지기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도록 합니다.

예체능 등 특별활동 :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극적인 성격의 배움지기에게는 너무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줍니다. 예체능 활동의 특성 상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교사와 재단에 이를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합니다.

종료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배움지기와 관심사 등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시간의 학습 내용을 알려주고, 복습과 예습을 부탁드립니다. 배움지기의 고민 중 특이 사항은 배움지기 담당 교사께 알려 드립니다.

2.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사례 (다가가기)

● 5개 단어로 말해요 (9기/경북대학교 프라이어리)

배움지기가 대중 앞에서 '나'를 5개의 단어로 자신 있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 렛츠클레이(9기/성균관대학교 ISJ 꿈모리팀)

36개의 대화 주제 카드를 6x6 형식으로 엮어둔 뒤에 조원들이 차례대로 주사위를 굴려가며 자신의 말을 움직여 선택되는 주제에 관련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단체소개 및 상호인사 (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팀)

배움지기들에게 멘토링을 진행 할 나눔지기들과 멘토링 내용을 소개하고, 배움지기들을 저학년, 고학년별로 5개 팀으로 나누어 담당 나눔지기를 배정해주었습니다.



● 멘토소개/멘티소개(10기/KOSAF 9팀)

다함께 손을 잡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며 캠프기간동안 함께 할 나눔지기, 배움지기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력체험(11기/대구대학교 새움다움팀)

어두운 밤에 짚궁과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심을 증진시키고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 모두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상승시켜주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다짐의 시간 및 각서 작성 (11기/순천대학교 같이개!팀)

캠프기간 중에 학생의 신분으로써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상기시켜 배움지기들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 하면서 안전사고에 관한 나눔기지와 배움지기들의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재난사고, 안전사고 대처법 소개 (11기/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1팀)

안전한 캠프 활동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을 끄는 법을 알려주고 배움지기들이 직접 소화기를 분사 해보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 포스터 만들기 (12기/원광대학교 SGI팀)

멘토와 멘티들을 3개의 조로 나누고 조 이름, 구호, 포스터 등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여 서로 어색함을 줄이고 친밀도를 향상시키며 소속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첫인상 토크 (12기/숙명여자대학교 SIIIWA팀)

첫 인상을 묘사하는 긍정적인 형용사를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고 2명씩 짝을 이룬 배움지기들은 자신의 짝을 묘사하는 긍정적인 형용사 5개를 골라 기록 하였습니다. 이후 한 명씩 일어나 구성원들에게 선택한 형용사와 이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짝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팀원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고 자신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통해 자아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사례 (학습지도)

● 학습계획서 작성 (8기/숙명여자대학교 SWUBA)

나눔지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지기들에게 국, 영, 수 등의 과목들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각자에게 알맞은 학습 스타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시계 만들기기를 통한 각도 배우기 (9기/부경대학교 Law-brain)

직접 시계를 만들어 보며 시계를 이용해 각도에 대해 공부하고 보다 재밌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내 혈액형은 뭐지? (9기/성균관대학교 성균빛나눔팀)

배움지기들에게 혈청과 혈액의 응집 반응을 설명해 주고 채혈을 하고, 혈청을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혈액형을 판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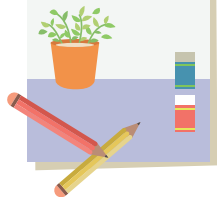
● 어떻게 해야 구슬이 느리게 내려갈까? (9기/성균관대학교 성균빛나눔팀)

우드락, 수수깡, 젓가락,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골드버그 장치를 직접 만들어 보고 장치에 구슬을 굴려, 구슬이 최대한 느리게 내려가 바닥에 닿도록 만들어 보면서 원리에 접근하기 위한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화산폭발 모형 만들기 (9기/성균관대학교 성균빛나눔팀)

탄산수소나트륨과 식초, 소다를 이용하여 화산 모형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해주고 함께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화산과 비교하며 화산폭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영어 교육(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팀)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며 ABC송을 통해 기본 알파벳 개념을 알려주고, 인디언송을 통해 숫자를 영어로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즐기면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고, 교실 앞에서 노래들을 아이들이 직접 불러 볼 수 있도록 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탱탱볼 만들기(9기/경북대학교 프라이어리)

배움지기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 탱탱볼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배움지기들이 화학적 분자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발! 역사 속으로

(9기/성균관대학교 하이틴팀)

오늘날의 역사 교육에 대한 축소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학습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역사 교육을 가로세로 퍼즐, 순서 맞추기, 퍼즐 맞추기 등의 게임으로 진행하여 배움지기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계란우주선 만들기

(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팀)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빨대와 고무줄, 종이컵, 신문지,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2인 1조로 계란우주선을 만들어 보면서 만유인력과 중력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경대에서 낙하실험을 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계란이 깨지지 않을지 고민해보고 발표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날아라! 고무동력기야

(9기/부경대학교 Law-brain팀)

배움지기들과 함께 고무동력기를 만들며,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과 동력의 원리에 보다 흥미를 느끼며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젤리처럼 동동해 쿠키처럼 촉촉해

(9기/성균관대학교 하이틴팀)

'비뉴턴역학 유체'라 일컬어지는 다결정구조의 녹말반죽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점탄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한 흥미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화학 분야로 유도될 수 있었습니다.



● 속담 만들고 몸으로 말해요

(11기/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사랑의 실천 팀)

문지에서 글자를 오려 속담을 만들며 속담에 대한 지식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속담을 몸짓을 통해 설명하는 활동으로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명탐정 코난 (11기/인천대학교 PAG 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패러디해, 배움지기들에게 지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놀이를 통해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폭풍의 주식시장 (11기/포항공과대학교 가치배움 팀)

모의주식시장을 만들어 배움지기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아로마테라피(11기/건국대학교 KUL팀)

직접 아로마 밤을 만들어보면서 배움지기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배움지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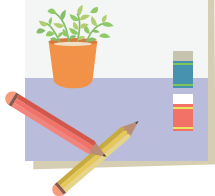
● 화분케이크 만들기 (11기/건국대학교 KU helper팀)

화분모양 케이크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흥미를 느끼고 토양과 생태계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구슬 롤러코스터(11기/KOSAF 7팀)

배움지기들이 만든 길을 따라 구슬이 움직이는 구슬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봄으로써 기초적인 물리 지식과 공간지각 능력을 배양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끈기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집 만들기(11기/홍익대학교 합천초팀)

아이들이 직접 부재를 이용하여 바닥, 벽체, 지붕까지 조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관심과 집중력을 보였고 비록 모형이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잔디인형과 함께 만드는 분자요리 (11기/홍익대학교 중앙초팀)

아이들이 직접 잔디인형을 꾸미고, 분자요리를 만들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이론을 실생활에 맞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애니메이션 팝송 배우기 (11기/동국대학교 Do Dream팀)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영상을 보고 영어표현을 배우며 함께 불러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어공부에 흥미와 열의를 보였고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모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 고무줄 동력 자동차 만들기 (12기/강원대학교 한길과 한울팀)

고무줄 동력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이용한 볼링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졌고 건전지의 원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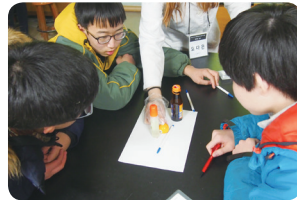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사례



● 범죄현장수사 (12기/중앙대학교 생명과학팀)

범죄 현장의 한 상황을 가정하여 지문감식, 족적채취, 혈흔감식 등의 원리를 체험해 보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추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과학 수사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원리들을 이용하여 모의범죄수사를 진행해 봄으로써 탐구능력과 과학적 지식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 역할극(12기/홍익대학교 합천팀)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에 대해 배워본 후 원하는 역할을 배분하여 맡은 역할 대본은 연습하였습니다. 이후 역할극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알기 어려운 역사적인 내용은 배움지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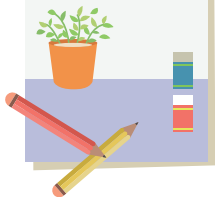
● 영화 속에서 내 목소리가? (12기/춘천교육대학교 나비스 무지카팀)

해피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감상한 후에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각자 더빙할 인물을 결정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빙을 연습한 후에 더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더빙을 함으로써 배움지기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재미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관측(12기/충북대학교 1eV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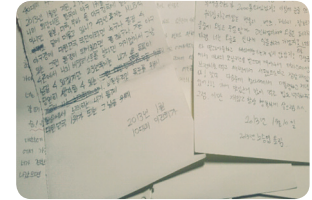
망원경의 부품 명칭을 소개하고 조립, 관측, 분해 시 지켜야하는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망원경의 균형을 맞추고 별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 뒤 배움지기들이 직접 망원경을 조립, 분해해보고 별을 찾아 관측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의 특성상 보고 듣고 만지며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보다 쉽게 별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사례 (진로상담)

●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6기/성균관대학교 GNC)

작은 상자에 현재까지 활동했던 사진과 함께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배움지기들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소개(9기/성균관대학교 ISJ 꿈모리팀)

나눔지기들이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학과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여 배움지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8개 조의 테이블을 각각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사범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대 및 약대, 스포츠과학부 부스로 사용하여 배움지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는 계열 및 학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무를 소개합니다. (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나무에 배움지기의 장점과 꿈 등 긍정적인 면은 꽃 모양 포스트잇에 적어 나무에 붙이고 단점 등 부정적인 면은 낙엽 포스트잇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공유하여 강점을 부각시킬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Dreams Come True (9기/성균관대학교 ISJ 꿈지기팀)

비전을 이루기 전의 상황, 이루어 가는 과정, 이룬 이후의 상황을 단계별로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활동으로,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비전 굴곡 그래프 (9기/성균관대학교 ISJ 꿈지기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비전이 변화하는 과정을 준비된 활동지에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서 현재 꿈이 없거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배움지기들에게 예전의 기억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너 자신을 알라 (9기/성균관대학교 ISJ 꿈지기팀)

자신을 표현하는 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싫어하는 일, 자신이 정의하는 가치, 자신의 가치관을 적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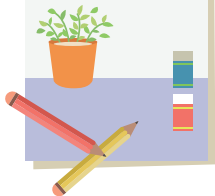
● 고민상담 릴레이 (9기/부경대학교 Law-brain)

배움지기들이 평소에 말하기 힘들었던 고민을 익명으로 하여 칠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인 후 나눔지기와 배움지기들이 함께 그 답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자신의 꿈 발표하기(10기/KOSAF 3팀)

배움지기 아이들의 '꿈'을 발표하고 나눔지기들이 배움지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덕담 등의 피드백으로 배움지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꿈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걱정인형 만들기(11기/세종대학교 팀)

배움지기들이 직접 걱정인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나눔지기와 배움지기들에게 털어놓고 위로와 해결책을 얻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방송국 체험(11기/제주대학교 도담도담팀)

화면에 비춰지는 아나운서, 리포터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방송 과정과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가치관 경매 (11기/순천대학교 JOB多한 대학생들팀)

배움지기에게 가상의 종이돈 10만원을 주고, 칠판에 가치관을 적어 놓고 경매를 통하여 원하는 가치관을 구매하고 경매가 끝난 후 서로 가치관 구매 이유와 생각을 공유하고 배움지기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꿈틀꿈틀 꿈을 담은 틀! (12기/세종대학교 비트원A팀)

배움지기들이 자신의 꿈이나 롤모델의 모습을 그리고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 액자를 꾸미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액자를 통해 자신의 장래희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을 발표해 보기도 하며 배움지기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진로 골든벨

(12기/숙명여자대학교 COCOPHARM팀)
직업과 관련된 o/x 문제,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풀기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직업 관련 동영상도 시청하였습니다. 배움지기로 하여금 평소에 관심 없던 직업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나의 꿈, 나의 명함(12기/KOSAF 4팀)

20년 뒤 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의 특이한 명함을 소개하며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꿈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Holland, MBTI, OK-EGO GRAM 검사 (12기/영남대학교 청춘심리팀)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자아 탐색 시간을 가지며, 서로 다른 유형은 어떠한 방향 계획을 세우는 지 확인해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검사해석은 잘 되었으나, 이후의 심화활동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사례 (예체능 등 창의활동)

● 협동심을 키워주는 레고 게임 (8기/KOSAF 6팀)

배움지기들이 함께 레고를 만들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을 손으로 이리저리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며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댄스스포츠 활동 (8기/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4팀)

나눔지기들이 배움지기들에게 춤을 알려주고 함께 춤을 춰보면서 서로 친밀감도 생기고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였지만 점점 배움지기들도 재미를 느껴서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태극기 (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팀)

저학년 배움지기들에게 태극기를 언제, 어떻게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팀별로 팀을 대표하는 각자의 태극기를 만들어 보며 태극기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요리왕 대결(9기/부경대학교 Law-brain)

배움지기들과 나눔지기들이 함께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미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플래시몹(9기/성균관대학교 컴에듀드림팀)

배움지기들에게 꿈을 찾아주고자, 꿈을 찾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 '드림하이'라는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을 기획하여 약 2시간에 걸친 연습 끝에 촬영을 무사히 마쳐 예쁘게 편집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배움지기들과 나눔지기들 모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소운동회(9기/성균관대학교 하이틴팀)

나눔지기, 배움지기들이 모두 돌려앉아 서로의 이미지를 관찰하여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의자를 쟁탈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게임인 '사랑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탁구공을 상대방 대야에 많이 옮기는 '탁구공 빨리 옮기기', 주어진 구역 내에서 쪼그려 앉은 뒤 다리를 붙잡고 상대를 밀어내는 게임인 '돼지싸움', 마지막으로, 머리띠에 만보기를 달아 배경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며, 게임을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만보기 흔들기' 프로그램으로 배움지기들의 집중력과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짝피구

(9기/성균관대학교 SUGGESTERT팀)

나눔지기과 배움지기가 짝이 되어 짝피구 경기를 하며 나눔지기들은 배움지기들을 지켜주고, 배움지기들은 나눔지기를 따르며 친밀감도 생기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나게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10기/KOSAF 10팀)

나눔지기, 배움지기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로고 또는 글자, 그림 등을 넣어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체육활동 (10기/KOSAF 16팀)

짝 피구, 8인 9각, 전차놀이 등 팀원이 뭉쳐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협동하여, 팀별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 자전거 일주(11기/제주대학교 자전거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전거 일주를 하면서 나눔지기과 배움지기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과자집 만들기(11기/KOSAF 10팀)

과자를 이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과자집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배움지기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패션피플

(11기/중앙대학교 다빈치봉사단팀)

배움지기들의 체형진단과 펄스널 컬러진단 후 의상을 직접 제작하고 패션쇼와 화보촬영까지 진행하며 배움지기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뽐내고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자기애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야광물감으로 별자리 만들기 (11기/홍익대학교(세종) 공명팀)

인체에 무해한 야광물감을 손으로 만지며 별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편백나무 구슬에 문질러 보기도 하고 구슬을 책스플록 액션페인팅처럼 던지며 아이들이 예술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태권도 및 호신술 (11기/동국대학교 형사법학팀)

먼저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호신술 기술을 배운 후, 짝을 지어 친구들과 실습을 하며 배움지기와 나눔지기 간의 친화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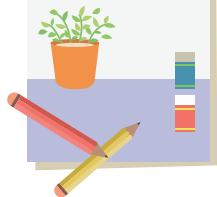
● 빛의 예술-인터랙티브 그림자극 (11기/홍익대학교(세종) 공명팀)

빔프로젝터와 와콤 펜 태블릿 디지털타이저를 활용하여 배경을 실시간으로 그림으로써 아이들이 그린 OHP 필름 인형과 미술전공 교사가 담당한 배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연극이 되었습니다.



● 아이스크림 만들기 (11기/홍익대학교 목면초팀)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조별로 아이스크림 맛을 맞추는 게임도 하며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연극 활동(11기/홍익대학교 날개팀)

배움지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화구연과 연기를 잘 해내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고 연기를 함으로써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이고, 조원들과 함께 연극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세계 민속놀이(11기/홍익대학교 날개팀)

세계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각 부스마다 전통의상을 입은 나눔지기들이 있어서 생소할 수도 있는 세계 전통놀이였음에도 배움지기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참여하였습니다.



● 벽화 그리기(11기/부산대학교 미술팀)

손바닥을 이용해 단계별로 벽을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들이 서로 협동하여 학교 시설물에 벽화를 완성해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 명화그리기 (12기/단국대학교(천안) SD카드팀)

사포 위에 명화를 따라 그리는 활동을 하고, 드라이기로 크레파스를 녹여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익혔습니다. 크레파스라는 친숙한 재료였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았기 때문에 배움지기의 집중력과 흥미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적어볼까?

(12기/건국대학교(글로벌) 프리드로우팀)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업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앉아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배움지기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고 아직 자신의 글씨체가 잡히지 않은 배움지기들이 자신의 특성과 글씨체를 찾아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민속놀이 한 마당(12기/홍익대학교 목면팀)

발 멀리 던지기, 제기차기, 비사치기, 딱지놀이, 칠고놀이, 나무막대 쌓기, 공기놀이, 사방치기를 팀별로 돌아가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임 평소 해보지 못한 전통 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고학년이 팀의 팀장이 되어 다른 배움지기들을 이끌어주면서 진행된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 한지로 한복 만들기

(12기/숭실대학교 사랑나눔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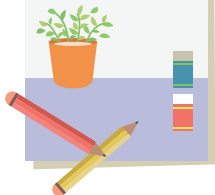
한복과 현대적으로 해석된 한복을 소개하고 한지로 한복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별로 만들고 싶은 한복을 디자인하여 한지로 만들어 보았고 자신의 조의 한복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아요!

(12기/대구대학교 훈민정음팀)

배움지기들이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른 배움지기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배움지기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사례 (마무리)

● 모빌 디자인

(12기/광주여자대학교 KWU 디자인팀)

모빌 형태 소개와 예시를 소개해주고, 배움지기가 모빌 디자인을 하고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배움지기와의 단합 도모를 일깨워주고, 나눔지기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창의력과 개성을 발산할 수 있고 유난히 배움지기들이 생소해 하고 좋아했던 활동이었습니다.



● Pizza party(6기/성균관대학교 GNC)

나눔지기들과 배움지기들이 함께 둘러앉아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수료식(6기/성균관대학교 GNC)

활동종료 후 나눔지기들과 배움지기들이 함께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마무리 게임/사진

(9기/성균관대학교 Creco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족오락관과 같이 초성으로 노래나 영화제목을 맞추거나 주제에 맞는 노래 제목을 대고 그 구간을 부르거나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동작을 맞추는 간단한 게임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멘토링에서 나왔던 정보들로 퀴즈를 내기도 하며 함께해온 활동의 추억도 떠올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프로그램 사례



● 롤링페이퍼(10기/단국대학교 꿈지락팀)

나눔지기와 배움지기들이 그동안 함께한 활동기간 하지 못했던 말이나, 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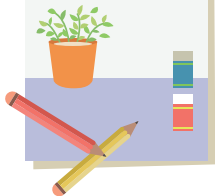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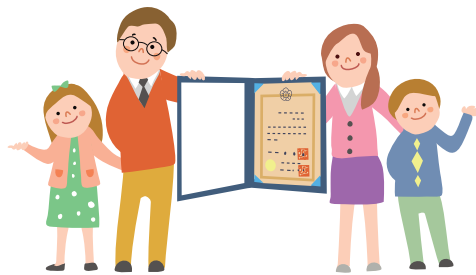
● 캠프 마무리 및 동영상시청 (11기/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1팀)

배움지기와 나눔지기 간의 편지 교환과 활동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통해 숙연하게 캠프활동을 되돌아보며 함께 쌓았던 추억을 되새기고 편지로 마음을 나누며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상정수여(12기/ 홍익대학교 날개팀)

배움지기들이 그동안 풀었던 학습지 및 활동지를 모은 파일과 나눔지기들이 쓴 롤링페이퍼를 전달하고, 함께 활동한 기간 동안 알게 된 배움지기들의 장점으로 상정의 이름을 기발하게 만들어서(ex. 아이슈타인상, 정선 호날두상) 배움지기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배움지기들이 좋아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배움지기들에게 책임감, 자신감,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10문 10답

8기/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3팀 세움



1. 소속대학/팀명

연세대학교의 건축봉사 동아리 '세움'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이었습니다.

2. 캠프 컨셉

기본적으로는 수학,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주면서,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 캠프는 언제

1월 6일~1월 17일까지 주말 제외 1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4. 멘토는 누구

기본적으로는 수학,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주면서,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 캠프 장소는 어디

충청북도 단양

6. 멘티는 누구

단양중학교 2, 3학년이 되는 학생들



7. 숙식은 어떻게

아침에는 보통 시리얼 혹은 빵으로 먹었고, 점심은 멘티들과 함께 피자, 김밥, 토스트 등을 먹었으며 저녁은 멘토들끼리 돌아가며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숙박은 단양중학교 근처의 콘도에서 묵었습니다.

8. 특이사항

생각보다 멘토들이 요리를 잘 해주어서 건강한 2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 식비를 아끼기 위해 요리를 하려고 하나 그 질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 멘토들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9. 캠프가 끝나고 난 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던 멘토링이었으나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 멘토링이었습니다.

10. 다음 멘토들에게 한 마디

세 번째 참가했던 멘토링이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진행한 뒤 제 머리 속에 남았던 멘티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가고 나면 저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멘토링이 끝나고 난 뒤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멘토 분들도 꼭 가시기 전에 진정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을 진행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통제 불능일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10문 10답



8기/KOSAF 11팀



1. 소속대학/팀명

성균관대학교 / Luxury Bus (지난 오리엔테이션때 섬으로 가는 멘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 비해 우리 팀은 상대적으로 버스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었고,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Luxury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2. 캠프 컨셉

지난해 인기 절정의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94를 모티브로 하여, 멘티들이 시간이 흘러도 이번 캠프를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캠프로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응답하라 2014'를 컨셉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대입까지 사(事)후 관리를 통해 학업 적으로 강력한 백(?)이 되어 줄 생각입니다.



3. 캠프 일자 / 장소

일자 : 2014년 1월 20일 ~ 2014년 1월 25일 (4박 5일)
장소 : 고추장으로 유서 깊은 순창군 순창고등학교
마치 대학교 강의실 같았던 교실, 과학실, 체육관, 기숙사, 눈이 많이 내렸던 그리고 목숨 걸고 눈싸움 했던 운동장 등등



4. 멘토는

성균관대학교 각기 다른 전공의 5명
08학번 왕고(?), 10학번 왕고(!) 직속후배, 11학번 귀중하고 유일한 여학우, 13학번 그다지 풋풋하지만은 않았던 신입생들

5. 멘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나랑 18세 어린이들 남학생 14명, 여학생 22명 도합 36명(처음에는 20명으로, 그러다가 캠프 시작 불과 며칠 전 14명 추가, 캠프 당일 2명 추가)

6. 숙식은

숙박은 학교 기숙사, 식사는 학교 급식 외 담당 선생님께서 사주신 고급! 한정식

7. 특이사항

자체교재제작(그다지 풋풋하지만은 않은 유일한 문과출신 신입생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이용해 완성한 교재)

8. 캠프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친구들을 멘티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고 있었고 부득이하게 빠질 수 없었던 관계로 5일중 3일은 오후 3시부터, 남은 2일은 아침 9시부터 저희에게 시간이 할당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은 아침 9시부터 진행하도



록 계획했었지만 불가피하게 일정들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들은 각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들을 메인으로 하고, 그 과목에 대한 흥미 있는 주제들을 따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점은 저희 5명중 1명만이 문과생이었고 나머지는 이과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이과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국사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보게 되었고 다행히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학교에 도착하였고 처음에는 멘티들이랑 어색할 줄 알고 나름 걱정을 하면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리액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죽은 멘토도 살려야 함을 절실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식멘토링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너무나 반기고 기대해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색한 부분 없이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멘티들 전원이 기숙사에 살아서 저녁시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체육 활동들을 통해 멘티들과 정신연령을 맞추고, 마치 동네 형, 누가가 도리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점이 시골이다 보니 멘티 대부분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멘티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운동이었습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어울려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피구도 하며 도시학생들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학생 기숙사에서는 저녁마다 멘티 친구들과 좁디좁은 한방에 모두모여 과자를 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매일 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친해지니 남은 멘토링기간 동안은 너무나도 즐거운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할당된 시간이 짧아서 뭔가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대신 저희는 상담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30분부터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투자하였고 이 부분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 '015B'의 이젠 안녕이란 BGM을 틀어놓고, 롤링페이퍼를 쓰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는 멘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4박 5일간 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외지에서 누군가가 오는 점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슬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들은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하고, 내일(2월 17일) 멘티들이 서울에 놀러오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8일에도 다른 한 팀이 오고, 22일에도 또 다른 한 팀이 오기로 했습니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친구들이 올라올 예정인 듯합니다. 물론 저희 멘토들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슬픔과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 다음 멘토들에게 한 마디

먼저 아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답사를 반드시 가시길 추천합니다. 모든 인원이 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팀장은 가야하며, 담당 선생님과 얼굴도 보지 않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예외도 아닐뿐더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캠프 시작 전까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선생님을 최대한 귀찮게(?) 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팀장의 역할이죠. 저도 최대한 노력하였고 혹시 선생님께 연락드릴 부분이 있어서 문자나 메일을 보내야 할 경우에 반드시 맞춤법 검사를 한 후에 보냈습니다. 이런 예의바른 모습들을 통해 저희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좋았고, 3째날 저녁에는 같이 선생님들과 술 한 잔하며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기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3. 10문 10답



선생님들 주량과 체력에 한껏 경의(!)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티들에게도 '선생님'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동네 형, 누나로 다가가길 추천합니다. 제 경험상 아무리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도 멘티 본인에게 맘이 들지 않으면 학생입장에서도 그다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 같은 선생님께 장난도 치면서 중간 중간 던지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더 임팩트 있게 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국가우수장학생이란 신분을 내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적으로 뒤쳐진 학생들에게 마치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망가지며 정신연령을 약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관심사도 어느 정도는 알아간다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여학생들 사이에 EXO라는 그룹이 대세라더군요. 남학생들의 경우 LOL이라는 좋은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파이브 같은 스킨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 고교시절에만 해도 반 친구들과 치고 박고하며 더 친해지듯이 스킨십을 통한다면 분명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멘토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는 같이 함께한 4명의 동생들이 제 말을 잘 따라 주었고, 제 장난도 거침없이 받아주어 첫날부터 마치 응답하라1994의 윤진이처럼 역살을 잡고, 동생들도 기꺼이 잡혀주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소통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전 나이가 약간 있는 편이라 한창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던 세대였습니다. 게임에서 팀플레이를 할 때 대화가 많으면(설령 나쁜 말일지라도) 항상 이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편해지면 멘토들의 숨겨진 능력들이 나올 것이며 저희 역시 이런 소통들을 통해 미적 감각이 뛰어나는 문과 동생의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교재도 쉽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혹은 금전적인 부분이 타이트하다면 약간 값싼 식사를 하면서 남는 예산을 멘티 친구들에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간식, 선물 등 대부분의 예산을 멘티들에게 투자하였고, 너무나도 많이 퍼주다 보니 마지막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 사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느낀 점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왔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며, 사고도 많이 쳐보면서 나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경험 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누군가를 대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부분을 암묵적으로나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최근 몇 년 동안 '아쉽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멘티 친구들이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가슴 터놓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들어주면서 왠지 모를 따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교무실 출입이 엄청 어려웠을 텐데 이 순창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정말 진심으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멘티친구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성이 올바르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나를 편견 없이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저도 헤어질 때 눈물이 나더군요. 그간 몇 년 만에 "이별의 아쉬움"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뭔가 제 감정도 순화되고, 모처럼 옛날 담임선생님과 교생선생님들을 따로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 "힐링"이 되고,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 지기도 하고, 무언가 많은 선물을 가슴가득 받을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 했습니다.

8기/성균관대학교 KUSA팀



1. 소속대학/팀명

성균관대학교/KUSA팀 쿠사는 성균관대학교의 중앙봉사동아리로 이번 성균 동계 멘토링에 지원해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2. 캠프 컨셉

잠시 쉬면서 너의 미래를 그려봐!

3. 캠프는 언제

2014년 01월 20일 ~ 23일 4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4. 멘토는 누구

성균관대학교 KUSA의 2013년 신입생 2학년 한명 1학년 9명, 총10명!

5. 캠프 장소는 어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시청각실, 교실



6. 멘티는 누구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2명



7. 숙식은 어떻게

근처 펜션에서 머물면서 식사는 주로 주문해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주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8. 특이사항

ppt를 활용한 강의식 진행, 쿠사만의 레크레이션, 멘티들과의 야식

9. 캠프가 끝나고 난 후

저희는 주로 각자 소속된 대학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 지 등을 강의에

포함시키며 아이들이 미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을 보며 부듯하기까지했습니다. 또 보통의 예비 고등학생들과 달리 1월 초 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하며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레크레이션 시간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캠프를 마치며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멘토들, 멘티들과 선생님들, 학교와 재단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고, 꼭 지원할 것입니다!!

3. 10문 10답



10. 다음 멘토들에게 한 마디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정된 학교 측과 자주 연락하며 멘티와 학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멘티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즐기다 보면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8기/공주대학교 임건웅팀

1. 소속대학/팀명

저희는 충남 공주대학교의 화학교육과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임건웅팀입니다. 총원은 7명이고 미리 교육의 경험을 쌓기 위해 이번에 학과의 선후배 끼리 뭉치게 되었습니다.

2. 캠프 컨셉

대부분의 일반계 중, 고등학교가 그렇듯이 과학이란 과목을 배울 때 이론위주의 수업입니다. 자연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실험의 기회가 적습니다. 저희가 가는 예산의 신암중학교는 산간지방으로 더더욱 이러한 과학실험의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에 저희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험의 현장이 저희 캠프의 컨셉입니다.

3. 캠프는 언제

저희의 캠프는 2014년 01월 20 ~ 23일 4일 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4. 멘토는 누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학생들 7명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10학번 남학우 5명과 12학번 여학우 2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5. 캠프 장소는 어디

예산 신암중학교의 교실을 이용하였고 과학실험을 수행할 땐 과학실에서 수행하였습니다.

6. 멘티는 누구

개발이 덜 된 곳이라 학급수가 1반밖에 없는 학교에서 이제 2학년과 3학년에 진학을 하는 7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7. 숙식은 어떻게

저희가 다니는 공주대에서 실험 기구와 실험 약품들을 챙겨 와야 하므로 공주대학교 근처의 집에서 예산까지 통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는 마땅히 해먹을 곳이 없어 모두 근처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8. 특이 사항

너무 실험만 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mbti검사를 수행하기도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관련 영화나 보드게임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9. 캠프가 끝나고 난 후

저희 팀은 예산의 작은 시골학교에 배정받아 7명의 학생들과 함께 4일을 보냈습니다. 신암중학교는 전교생이 26명으로 전체 1학급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각각 다르다 보니 나이에 따라 수준차가 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이론을 설명해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엔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실험에 임하고 자기들이 만든 실험 작품을 자랑하며 기뻐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간단한 오티를 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엔 아이들이 수줍음이 많아 말도 제대로 안하다가 점점 수업이 진행 되면 될수록 멘토들을 더욱 믿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꿈이 교사인데 벌써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교사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또 이러한 멘토링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 다음 멘토들에게 한마디

처음에 저희는 학교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장학재단에서 매칭시켜준 학교와 멘토링 캠프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멘토링 캠프를 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준비도 못했지만 다음번하는 멘토들은 미리 자신들이 전해주고 싶은 내용과 부합하는 학교에 가서 사전조사와 계획을 하신 뒤 멘토링 캠프에 임하시면 멘티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10문 10답



11기/영남대학교 상문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영남대학교 상문팀 정수빈

2. 캠프 컨셉

All participate and be merry 모두 참여하며 즐기세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하여 멘토, 멘티 모두가
흥미를 가지며 참가할 수 있는 캠프



3. 캠프기간은

2015년 8월 3일 ~ 5일

4. 수혜기관은 어디

광교마을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이번 한국장학재단 봉사캠프를 다녀오기 전에 했던 첫 교육봉사에서, 생애 처음으로 선생님이란 호칭을 들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한없이 부족했던 저에게 아이들은 힘이 돼주었고 오히려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교육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장학재단 지식봉사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박4일 동안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처음으로 와보는 광교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나눔과 배움에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3박4일 동안 진행된 캠프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야외활동이었습니다. 근처 중학교 운동장에서 보물찾기, 캐치마인드, 얼음땀, 콜라 슬러시 만들기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20대 대학생이었던 우리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모두 즐기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계획한 프로그램 중 과자집 만들기였습니다. 준비물 중 생크림이 필요했는데 타 지역에도 처음가보는 곳이라 생크림이 상할까 염려되어 가루로 된 생크림을 구매했습니다. 물과 섞으면 생크림이 된다는 설명에 배합을 하여 만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과자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생크림 만들기에 실패해 버려서 근처의 마트를 둘러 새로 구매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운 점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 한번쯤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좋았던 점은 멘토가 되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그만큼 멘티들과 팀원들에게 사랑과 정을 얻어가는 것이고 아쉬웠던 점은 3박4일간 함께 보냈던 광교마을아동센터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너무 그리운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즐겁지만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심'입니다.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시절을 절반 이상 지나고 있는 저에게 동심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사캠프를 통하여 아이들의 어리고 순수한 마음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봉사캠프를 다녀온 곳을 또 한 번 더 가세요! 하계에 갔다면 동계에...동계에 갔다면 하계에...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갔을 때, 작년에 온 팀들 사진을 보여주며 '작년 선생님들은 온다고 했으면서 안 왔어요. 선생님들은 다음에 꼭 오셔야 되요. 거짓말쟁이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속스러움이 많아 제대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몇 없었지만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

11기/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컬러풀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컬러풀팀 김희선입니다!!

2. 캠프 컨셉

배움지기/나눔지기들에게 ♥좋은 추억♥ 선사하기!

3. 캠프기간은

2015년 7월 27일 ~ 31일, 총 5일이었습니다!



4. 수혜기관은 어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서초등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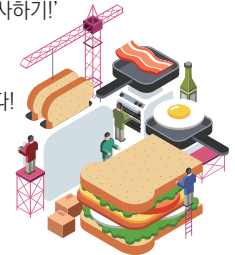
5. 참여 동기는

장차 영어선생님이 될 사람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서 보람도 느끼고, 나눔지기들과 친목을 다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지식 봉사'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배움지기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제공할 수 있고, 앞서 활동한 분들에게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질 좋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기에 지원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샌드위치 만들기'였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며 샌드위치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함께 먹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배움지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만든 샌드위치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먹지 않은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 드리고 싶어서 포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착한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했고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10문 10답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소설의 전개과정과 특징 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조별로 직접 배움지기들에게 소설을 창작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의 배움지기들이 저를 포함한 나눔지기 선생님들을 보면서 킁킁 웃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다가다니 소설을 쓴 종이를 숨기면서 발표할 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썼구나!' 하고 예상했습니다. 곧 발표시간이 되어서 그 조의 배움지기들이 교실 앞으로 나와서 직접 창작한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일진이 나오는 인터넷 소설 같은 내용 이었고, 역시나 등장인물은 나눔지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누가 바람을 피우고, 복수를 하려고하고,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막장 이야기였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보단 그저 웃음이 나오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조의 창작소설 발표를 마무리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나눔지기 선생님들끼리 다른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를 등장인물로 소설을 쓴 배움지기들이 교실로 들어와서 종이 한 장을 건네고 인사를 한 뒤 나갔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반성문이었고, '○○○선생님, ...□□□선생님께 사과문 올립니다.' 라고 맨 위에 적혀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쓰는 거 보러 오실 때 보지 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이름을 넣어서 이상한 소설을 써서 죄송합니다.', '소설을 쓸 때 반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등 본인들이 방금 전 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싸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선생님들 기분이 상하셨을까봐 이런 반성문을 써왔다는 게 기특했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착한 마음이 너무 예뻐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주었다는 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했고 그 날 이후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8. 캠프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배움지기들뿐만 아니라 나눔지기들과도 많이 친해진 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한 덕분에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연구력 및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운 점 등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 주도 오시면 안돼요?' 라고 말한 것처럼 주어진 5일은 우리에게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못 왔던 친구들에게는 많은 추억들을 안겨주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터득했고, 아이들 개개인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도 배워서 미래의 교사로서 한 걸음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캠프를 통해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 간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장학재단 대학생 지식봉사를 통해 얻은 것은 정말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스스로 열거울 거예요!

11기/건국대학교 KUHelper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건국대학교 KUHelper 윤충서

2. 캠프 컨셉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배움지기들을 위한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을 위주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자.



3. 캠프기간은

2015년 07월 27 ~ 31일

4. 수혜기관은 어디

광주 문산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학교 장학복지팀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학동기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배움지기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나눔지기가 도움을 주며 스스로 만들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마지막 프로그램후 나눔지기에게 선물을 줬었는데 한 아이가 자신이 받은 팔찌만들기 세트로 나눔지기 전부에게 팔찌를 만들어 주면서 고마웠다고 또 오라고 말하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우리에게 느낄 수 없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사전에 기관과 많은 연락을 하지 못해 좀 더 많은 준비를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주고 와야지'란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지만 배움지기들과 지내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점도 있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기관이나 주변에 사용가능한 장소, 나눔지기의 학년, 인원, 무엇을 원하는지 등등 꼼꼼히 물어보면서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 나눔지기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가세요!

3. 10문 10답



11기/건국대학교 KUL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건국대학교 KUL팀 이의지

2. 캠프 컨셉

멘토링&기초학습지도 자신의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 영, 수 기초 학습 지도(+영어 수학 창의활동, 과학 탐구활동)



3. 캠프기간은 2015년 07월 27일 ~ 31일(4박 5일)

4. 수혜기관은 어디 국관중학교

5. 참여 동기는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진로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나중까지 도움이 되는 기초학습을 다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움지기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어 도움이 되고, 기초학습 지도를 하여 미래에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참여했다.

6. 활동은 어떻게

형광 메모보드 만들기 이 활동은 나눔지기 선생님들도 조금 어려워 할 정도로 만들기 어려운 탐구활동이었는데 배움지기 아이들이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어서 너무 기뻐했다. 형광 메모보드를 다 만든 후에는 나눔지기 선생님들의 이름과 하트를 적거나 나눔지기 선생님을 그려 보여주는 등 너무 잘 활용해 주어 기뻐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영어 요리교실 시간에 배움지기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월남쌈을 나눔지기에게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때 몇몇 나눔지기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파프리카를 잔뜩 넣은 학생도 있어 재미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성껏 너무 맛있게 월남쌈을 만들어주어서 감동받았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좋았던 점 - 아이들의 의견을 중간 중간 계속 반영하여 나눔지기와 배움지기가 모두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3명 정도의 배움지기와 나눔지기 1명이 팀을 구성하여 좀 더 친해지고 개별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아쉬웠던 점 - 수혜기관 담당자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좀 불편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프로그램 계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모든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배움지기 아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놀고 즐거워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며 보람을 느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배움지기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면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움지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아이들도 진심으로 다가오니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11기/강원대학교 시나브로2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강원대학교 시나브로2팀 서범기

2. 캠프 컨셉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지기와 나눔지기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 나아가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3. 캠프기간은 2015년 08월 10일 ~ 14일

4. 수혜기관은 어디 전북 정읍 희망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지식봉사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수혜기관을 알아보던 중 발달장애 학생들이 있는 수혜기관을 알게 되고 평소 접해보기 힘든 발달장애학생 들을 보다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 이외에도 센터내의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센터의 프로그램은 보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보기를 하였는데, 영화관에서 돌발행동이 있어, 같이 보던 저희와 동행하신 담당자분도 같이 진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이 정상 아이들보다 나이에 비해 훨씬 순수하였고 나눔지기를 잘 따라와 주어 활동에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활동을 마칠 때 더 이상의 연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발달장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얼굴을 맞대며 생활을 하다 보니 보다 편견을 제치고 아이들을 보다 똑바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혹시 발달장애 아동센터로 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억지로 다가가기 보다는 시간이 조금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순화되어 마음을 금방 열고 다가가 주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10문 10답



11기/경북대학교 크누힐러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경북대학교 크누힐러 허유정

2. 캠프 컨셉

KNU(경북대학교)+힐러(Healer)

다양한 예체능, 진로 활동을 통해 멘토와 멘티 서로가 힐링해준다는 컨셉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자기계발, 고민상담, 예체능 프로그램을 진행



3. 캠프기간은

2015년 7월 20일 ~ 24일

4. 수혜기관은 어디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5. 참여 동기는

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됨

6. 활동은 어떻게

MY에코백 만들기! 무지예코백에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선택해 아크릴물감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포스트잇에 학생들의 고민을 익명으로 접수받고, 고민 상담 릴레이를 했었다. 멘토만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도 서로서로 상담을 해주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이다 보니 흥미로운 고민들도 많았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좋았던 점은 배움지기들이 호응도 잘해주고,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 잘 응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첫날에 떨림에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이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멘토와 멘티 간의 교감을 통해 서로가 힐링받을 수 있었던 시간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프로그램을 잘 때 시간 분배랑 꼼꼼하게 세부적인 거까지 계획하고 가세요!



11기/경북대학교 경청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경북대학교 경청팀 정혜주

2. 캠프 컨셉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자율적 능력 고취

3. 캠프기간은 2015년 7월 27일 ~ 31일

4. 수혜기관은 어디 제주도 안덕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평소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청소년교육지원사원에 3번 연속으로 나눔지기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서 1주일간 같이 멘토링 캠프를 가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었다. 나 또한 평소에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많았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6. 활동은 어떻게

총 8명에서 각 2~3개의 프로그램을 맡았다. 내가 맡았던 프로그램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소개해 주는 것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에코백이었다. 그 중 "환경을 생각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애들 뿐 만 아니라 나눔지기들도 즐겁게 에코백을 예쁘게 꾸몄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에코백을 사용하는 모습이 왠지 부듯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환경을 생각 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에코백을 꾸밀 때 염색색종이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오면 내가 다리미로 염색해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엄청 예쁘게 꾸며 온다. 그런데 그 중 어떤 한 아이가 나йки 로고를 오려서 왔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눔지기들도 명품로고를 오려서 에코백에 염색하고, 센터장 선생님께서도 캐나다로고를 만들어서 에코백에 염색했었다. 각자 자기가 만든 다양한 그림이 있는 에코백을 들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캠프식의 멘토링 활동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공부가 아닌 아이들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고 좋았다. 그리고 안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활기찬 성향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참여성을 보여서 좋았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그러한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성으로 인해서 통제가 힘들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활동을 3번 연속으로 했었다. 그 때 아이들 하나하나 다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섬마을 지역 아이들은 대구에서의 아이들과 또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역별로도 다른 성향을 나타내면서 각자의 개성을 나타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안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각자의 의견이 너무 강한 편이라서 조금 힘들었지만, 5일간 서로 정도 많이 들었고, 보람차고 즐거운 활동이었다.

3. 10문 10답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제주도지역을 활동장소로 택한 저희 팀에서는 활동기간이 휴가기간하고 겹치게 되어서 비행기 표 구매가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팀을 나누어서 하는 활동이 여러 개 있었다. 팀 나누기에서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더니, 너무 산만하기만 하고 팀은 나누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팀은 나눔지기들이 강력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11기/중앙대학교 나이팅게일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중앙대학교 나이팅게일팀 백우주

2. 캠프 컨셉

know yourself, build yourself 보건교육과 꿈멘토링을 접목시켰습니다.

3. 캠프기간은 2015년 08월 04일 ~ 10일

4. 수혜기관은 어디 전라도 무안군 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단순한 꿈을 멘토링 하는 진로멘토링보다 멘토링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주어져 보건계열인 전공과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매일 매일 스케줄을 짜놓아 안전교육, 성교육, 교통안전, 우울감, 자존감, 약물 교육 등 보건교육과 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진로탐색 시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명랑운동회도 중간에 개최하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웃지 못하는 해프닝도 생겼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처음으로 지식봉사 멘토링을 진행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지친 상태로 시작한 점과 아이들의 시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강의내용을 선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그 외의 모든 점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리더십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되니 기획력과 리더십을 기르며 또한 아이들을 통솔하며 책임감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많은 따뜻한 추억을 공유하고 남길 수 있었습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처음 멘토링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막막하고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다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보답되며 뜨거운 경험을 방학동안 할 수 있어요.



11기/단국대학교 단웅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단국대학교 단웅팀 이우재입니다

2. 캠프 컨셉

'오감만족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방학동안 주로 집에 틀어박혀있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오감을 여러 가지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자극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캠프기간은 2015년 8월 10일 ~ 14일까지 총 5일입니다.

4. 수혜기관은 어디 서울 창동에 위치한 '서울신창초등학교'입니다.

5. 참여 동기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당 사업을 찾게 되었고 여름방학 중 해볼 만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같은 과 학우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캠프 3일째에 배움지기들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에 있는 진로체험테마파크 '키자니아'에 방문하였습니다. 배움지기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진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어서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지원금과 수혜기관 측의 협조로 배움지기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캠프 프로그램 중 발대와 চাল흙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있었는데, 사전에 나눔지기들끼리 만들어진 입체도형보다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배움지기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배움지기들이 너무 착하고 협조적이어서 좋습니다. 활발한 수혜기관 측과의 의사소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별 문제 없이 진행하였고, 당연히 배움지기들의 참여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꼭 다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일주일동안 캠프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지원금 액수가 아쉬웠습니다. 배움지기들에게 더 많이 주고 오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모든 봉사활동이 그렇듯 줄수록 얻는 것 또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배움지기들의 시선을 보며 동심을 되새기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대로써 따뜻한 마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배움지기의 연령대, 학습 수준에 따라 알맞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짧은 기간 나눔지기, 배움지기 간 상호 친화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3. 10문 10답



11기/전북대학교 희망봉사단팀

1. 소속대학/팀명 제11기 전북대학교 희망봉사단 윤지선

2. 캠프 컨셉 친숙한 영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금 더 영어와 친숙하도록 캠프의 기본 테마를 영어로 잡고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준비하여 그와 관련된 생활 속 표현을 소개

3. 캠프기간은

2015년 08월 03일 ~ 06일

4. 수혜기관은 어디

다니엘지역아동센터

5. 참여 동기는

학교 공지사항에서 알게 되었고, 다른 교육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뜻이 맞아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6. 활동은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동적인 활동도 준비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캠프 마지막 날 헤어져야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캠프 일정이 끝난 후에도 연락이 와서 굉장히 부듯했습니다.

8.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좋았던 점은 삼박 사일동안 아이들과 어우러져 활동을 진행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마음껏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것인데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일정을 짤때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따라 와준 아이들도 있는 반면 생각만큼 잘 따라올 수 없는 친구들도 존재해서 그 아이들을 따로 챙겨야했던 점입니다.

9. 캠프를 통해 얻게 된 것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연령대가 비슷한 대학생들이 큰 즐거움을 선사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면서 몰랐던 같은 학교이지만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알게 된 것도 이 캠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다음 나눔지기들에게 한 마디

수혜대상의 연령과 그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파이팅하세요!!



4. 우수사례

수기 분야

- 제목 : 나눔의 연속성과 순환, 그 긍정의 소용돌이
- 수상자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주예솔

최우수상

1. 준비단계 : 각정에서 설렘으로

팀 구성원이 정해지고 캠프 기획회의가 시작되었다. 정해진 것이 없이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정하고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기획회의에 힘을 많이 쏟아야 했다. 처음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가 정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 부담과 걱정이 되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했던 것은 학생들의 특성이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학생은 가장 애매한 시기로 고등학생처럼 마냥 학업에만 열중하는 시기도 아니며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팀은 학업, 진로, 놀이 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우리 팀 구성원의 조율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동일한 문·이과 비율과 다양한 전공, 남녀 성비까지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다. 팀원들의 다양한 배경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조화롭게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전에 희망원정대를 다녀왔던 팀원들의 수가 꽤 되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피드백이 빨랐다. 피드백은 캠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팀원 모두 희망원정대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획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한 명도 소홀함이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자 주어진 임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출발 전 최종 기획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처음 느꼈던 막연함과 불안함이 언제 있었냐는 듯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과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 찼다.

2.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요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월요일 아침부터였기 때문에 우리 팀은 하루 전인 일요일 저녁에 미리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수업을 준비 및 점검했다. 필요한 비품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이름표를 만들고, 나눔지기-배움지기, 나눔지기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같은 생활수칙도 숙지하였다. 프로그램 도중 실수나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첫날은 교과목 수업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일명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나눔지기를 소개하고 배움지기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멘토링 시작 전부터 이미 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멘티와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더욱 서먹했다. 나눔지기가 먼저 다가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한 배움지기가 많았다. 배움지기 대부분이 자기 의지가 아닌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대부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배움지기의 태도가 수동적일수록 더욱 배움지기들에게 더 말을 많이 걸고 친밀해지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아이스 브레이킹 이후에는 전공소개를 진행했는데, 이는 우리가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실패였다.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전공과 그에 맞는 진로 분야를 설명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학생들은 아직은 대학, 전공,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듯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전공들을 다루고 또 쉽게 설명했음에도 배움지기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진 것 같았다. 배움지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관리가 힘들었다. 우리 팀원들도 전공소개 프로그램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매우 당황했고 우리의 실패를 절감했다. 그러나 첫날의 실패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날 프로그램을 마치고 피드백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전반적인 수정을 대폭으로 감행했다.

4. 우수사례



3. 친밀함의 발달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전은 교과목 수업으로, 오후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비교적 집중이 잘 되는 오전 시간에는 공부하고 점심을 먹은 뒤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을 예상하여 오후에는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배치하였다. 우선 교과목 수업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외의 활동으로 정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비전공생인 우리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주실 수 있고 요즘엔 인터넷 강의와 같은 다양한 경로로 교과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목의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하거나 게임을 활용해서 공부의 지루함을 없애고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우리 팀이 독특했던 점은 경매를 진행한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잘한 팀에 가상의 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멘토링 일정이 모두 끝난 마지막 날에 상품을 위해 입찰할 수 있는 돈이었다. 모든 과목에 고루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팀이 정말 많이 구상한 방법이었다. 배움지기들에게도 수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오후 프로그램은 체육대회, 골든벨, 개별 멘토링,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하고 흥미롭게 꾸며보았다. 둘째 날 바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몸을 사용한다는 점, 팀끼리 소속감을 묶어준다는 점에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가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예상은 잘 맞아떨어졌다. 나눔지기가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하거나 배움지기들이 시합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팀에 참여해서 게임을 했더니 더욱 친밀해졌다. 이전까지는 나눔지기가인 우리가 배움지기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었는데, 체육대회에서는 같은 팀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배움지기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다가가 주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친밀하기 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첫날의 걱정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 팀 남자 나눔지기들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은 그 더운 여름날, 심지어 폭염주의보까지 내린 날에 배움지기들이 축구를 꼭 같이하고 싶다는 말에 거절할 없이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준 것이다. 폭폭 찌는 더위에 걱정되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또 멘토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 마음들이 정말 예쁘게 보였다. 배움지기들을 가르치며 배움지기로부터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움지기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눔지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좋은 기회였다.

4.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히카시노 게이코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오는 대사이다. 그렇다.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제삼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확신을 받고 싶은 것이다. 청소년기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이 많은 자신을 표현하는 그들의 말은 “짜증난다”라는 하나의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한다. 우리는 배움지기 또래들의 짜증남의 근원이 궁금했고 이를 찾아보고 해결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멘토링 일정의 끝에 개별멘토링과 익명의 고민 상담인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였다. 개별멘토링은 우리 개별 나눔지기들이 5일 동안 학생들을 지켜보고 개별 배움지기의 특성에 맞추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표였고 보이는 라디오는 비밀로 하고 싶은 고민을 익명으로 제보하여 나눔지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치 있는 답변으로 함께 고민을 해결해가자는 취지였다. 개별멘토링을 통해서 개별 배움지기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친밀감을 더욱 나눌 수 있었고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제법 놀라운 사연들을 많이 접했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나눔지기가 조언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첫째로 배움지기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

으로도 후련할 것이다. 둘째로 나눔지기들마저 마치 배움지기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뻔 한 어른들의 말을 하는 것은 재미없고 반감이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나니 우리는 소소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의 DJ가 된 것처럼 톡톡 튀고 신기한 생각들을 배움지기들과 나누고자 했다. 그리고 배움지기들이 갖는 고민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엔 고민이 없다고 말하는 배움지기들이 많았지만, 이런저런 말로 끌어내다 보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 배움지기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5. 선생님 겨울방학 때도 올 거죠?

“선생님 꼭 다시 와야 해요!”, “다음 주 되는 거 싫어요, 선생님들 볼 수 없잖아요.” 헤어지면서 배움지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처음에는 친해지기가 어렵더니 이제는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우리 나눔지기들도 시간이 짧음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헤어짐이 아쉽기만 했다. 눈물을 보이는 배움지기들을 보니까 꼭 다시 오라는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00중 배움지기들을 꼭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웅숭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는 멘토링 기간 동안 우리가 활동한 사진들을 모두 한데 모아 동영상 제작하였다. 우리가 함께했던 활동들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걱정과 설렘 즐거움과 아쉬움 등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얹혔다. 멘토링 시작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준비와 수업 교구를 준비하고 멘토링 후에는 피드백회의를 거치면서 피곤했을 텐데 우리 팀의 동영상 제작을 맡은 나눔지기는 몇 천 장의 사진을 직접 고르고 자막까지 넣으며 밤을 새우고 추억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마지막 날 눈에 싹뻗음이 터진 모습에 그간의 노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뜻 깊은 마무리에 대한 간절함이 그리고 욕심이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고 정말로 헤어지려는데 몇몇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 나눔지기 모두를 위한 선물을 건넸다. 나눔지기들 각각의 사진을 직접 새겨 넣은 부채와 편지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생각하기에 앞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사실 멘토링을 시작한 뒤 다음부터 배움지기들이 우리 나눔지기들에게 사진을 달라고 계속해서 졸라댔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주는 것이 부담되었던 우리는 왜 필요한 건지를 먼저 물어보았다. 우리가 사진을 주기 망설여 하자 배움지기들이 임의로 나눔지기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저장하였다. 우리는 당황스러웠지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면 배움지기가 상처를 입을까 봐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 여러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한 선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고 우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병병했다. 그리고 선뜻 사진 한 장 내어주지 못한, 사진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있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말로는 고마움에 대해 먼저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더욱 앞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몸 둘 바를 몰랐다.

6. 그림에도 불구하고

00중에 도착해서 멘토링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무사히 끝내는 데 도움을 주신 00중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학교 규모가 아주 작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임은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00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열의가 넘쳤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었다. 도시에서만 자라 큰 학교만 다녔던 나로서는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학생들이 부럽기도 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다. 교사를 철밥통으로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세태가 만연해진 지금에 그분들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또한, 마을 주민 분들도 00중학교에 희망원정대가 지속해

4. 우수사례



서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계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진정으로 혜택 받은 곳은 사교육이 넘치는 서울 및 대도시보다 참교육이 실천되는 00과 같은 작은 지방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원정대와 같은 교육봉사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에서만은 의무교육제도로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0중학교도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이 잘 실천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다. 그러나 문화 자본만큼은 부족함이 컸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는 등의 방법으로 교양을 쌓고 창의력의 토대를 키울 수 있는 도시 학생들과 비교하면 지방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터였다. 우리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배움지기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우리 나눔지기들의 작은 경험들이 배움지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또 앞으로의 희망원정대원을 통해 배움지기들이 작은 경험들을 전달받고 더 큰 경험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7. 나눔의 연속성과 순환

나눔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 봉사이지만 나눔은 더 큰 나눔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나눔의 연속성과 순환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처음에 단순히 한국장학재단과 연세대학교에서 연결해 준 학교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고 오는 것인 줄 알았다. 물론 우리 00중학교 팀이 특이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 팀은 마을 주민 분들과 00중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00중은 전교생이 50명 남짓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이다. 산골의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의 00중도 50명 중 3학년 학생 절반이 졸업하고 나면 20~30명 남짓의 학생만 남는다. 이런 산골학교를 살리기 위해 00면 주민들과 00중 선배들이 나서준 것이다. 희망원정대의 경우 도서 산간 지역의 교육 소외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눔지기들은 교육봉사 자체뿐만 아니라 숙식과 교통에 대해서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다. 나눔을 실천하러 간 건 우리였는데 시작 전부터 마을 분들의 나눔을 먼저 받게 되었다. 그런 나눔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00중 학생들에게 더욱 열정을 쏟아 부었다. 또한 그분들의 나눔으로 인해서 오로지 교육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 도움을 주신 분 중 한 분에 따르면 자신의 학창시절 중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눔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눔은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순환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우리가 봉사활동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 바통터치가 되듯 나눔은 연결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인 나눔의 파급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이번 기회에 감사한다. 이 또한 나눔의 연속성과 순환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눔지기로 간 우리였지만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건 결국 배움지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은 깨우침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진실성 그리고 편견 없는 시선 등 아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배울 점을 많이 시사해 주었다.



수기 분야

- 제목 : 돈을 주는 것은 적게 주는 것이고, 꿈을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 수상자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국제관계학과 왕화빈

우수상

‘돈을 주는 것은 적게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꿈을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2015년 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리더십학생협회에 소속되어 있던 나는 멤버들과 함께 이 글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지식멘토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학업적인 지식이 아닌 비전과 리더십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학교 교육은 우리 대학생들보다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된 문구처럼, 우리가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나는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살아온 삶이 환경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를 쫓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더 큰 세상에 나가기 위해 사골 중학교에서 수도권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상당심리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학교에 다니는 등 내 삶 속에는 수많은 도전의 순간들이 점철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려울 때 내가 느꼈던 것처럼, 제약된 환경에서 꿈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무엇을 주었는가?

내가 그들에게 준 것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였다. 군대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고자 인생과 관련된 책을 50권정도 읽었다. 그 책들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법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의하고 그 순간을 누릴 줄 아는 것, 둘째는 돈을 못 받는다 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천직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를 통해 내가 고민했던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공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준 것이었다. 영어 사용이 불가피하게 된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은 시험 중심 영어교육으로 실질적으로는 영어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울렁증 때문인데, 우리는 이 울렁증을 깨주기 위해 폴란드 대학생 두 명을 섭외하여 캠프 동안 함께 활동하였다. 외국인과의 1:1 대화할 시간을 주고 게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가 외국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었다.

무엇을 배웠는가?

2014, 2015년 상반기 지식멘토링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깬 것이다. 지식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청소년 대다수가 대화 불가능하고 구제 불능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매스컴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불량사건을 주로 다룬데다 내가 맡은 지역의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막상 마주한 학생들은 상상과는 크게 달랐다. 도심에 사는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순수했고 착했다. 아이들이란 놓고 보면 운동장에서 뛰놀고 개울에서 장난치는 시골아이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편견이 깨지

4. 우수사례



게 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깊은 마음이었다. 겉으로는 밝고 착하게 행동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1:1 멘토링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문제, 현실적인 진로문제 등의 큰 상처와 불안들을 안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하고 어려운 고민을 마주하면서도 겉으로는 밝게 웃는, 또한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고민을 기꺼이 먼저 대학생 멘토들에게 얘기해 주는 용기 있는 모습들을 보며,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더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의 청소년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리더로서의 내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지식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 교육기관, 대학생 팀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팀의 리더로서 각 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했고 이를 대학생 팀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팀원들이 지식멘토링의 목적에 공감하고 지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다. 또한, 중학생들의 멘토로서 리더의 역할도 중요했다. 멘토는 멘티의 롤이 되므로 모든 행동거지, 태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됐서는 안됐다. 이처럼 리더로서 활동해야 하는 필연적인 환경에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부분에서 리더로서 강점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두 번의 캠프에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1:1 멘토링 시간이었다. 대학생 멘토 1명과 중학생 1명이 고민과 궁금한 것들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시간이었었는데, 나는 한 여학생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었다. 캠프 내내 그 여학생과 내가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진행을 위해 몇 번 말해본 것이 다였다. 그래서 깊은 얘기는 못 하고 농담이나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그 친구는 자신의 힘든 가정사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해주고 부모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평소 쾌활한 모습이라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던 아이가 이렇게 힘든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음에도 그 친구는 자신의 고민을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한 것에 비해 아이들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1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캠프에서 만났던 그 어린 친구들은 나에게 종종 안부를 전해 온다. 이처럼 인연을 소중히 여겨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고 '아, 내가 이들에 이만큼이나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식멘토링은 단순히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묶어주는 역할도 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세계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 자란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우리와 앞으로 살을 맞닿으며 소통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의 팀원들과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누군가를 교육할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소속 대학교, 활동 기관과 컨택하여 미팅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기회 또한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많은 기회가 집약된 지식멘토링에 더 많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음 세대와 성장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기 분야

- 제목 : “너는 내가 꾸는 꿈의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
- 수상자 : 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제학과 최지원

우수상

코이(KOI)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자라면 어항 크기만큼 자라고, 큰 강에서 자라면 대어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꿈을 꾸면 그 크기만큼 자라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 물고기를, 이번 겨울 내 마음에 품고 왔다.

사춘기 시절 나는 남들만큼 잘 해내지 못할까 봐 언제나 걱정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다. 시간은 멈춰 있을 것만 같았고, 밝은 미래에 있을 내 모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불안했다. 그때 그 마음들이 거의 9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도 생생한 만큼 중학생이었던 나는 어둡고 비관적이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 대학생처럼 과외 학생을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던 학생이 내게 말했다. 몸이 불편한 형 대신 부모님의 기대를 모두 짊어지고 있어, 잘 돼야 하고 잘 되고 싶지만, 자신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내 어린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때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누군가 그때 나에게 “넌 내가 꾸는 꿈의 크기만큼 자랄 수 있단다, 코이처럼.”이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나는 조금 더 희망을 품고, 더 밝게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아이를 비롯한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여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나의 대학생활 마지막 멘토링이 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 이야기이다.

쌀쌀한 날씨에 겨울옷들을 하나둘씩 옷장에서 꺼내기 시작하던 지난해 말, 우리 팀은 큰 도전을 해 보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나눔지기 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멘토링 캠프 기획'을 해 보기로 한 것이다. 나 역시 참여만 해 보았을 뿐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기분으로 출발선에 섰다. 우리와 매칭이 된 학교는 00에 있는 00고등학교였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였기에,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물론 마음껏 뛰어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꿈'에 관련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학습과 관련된 멘토링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봐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다. 거의 한 달 동안의 피드백, 수정, 그리고 또 피드백을 거듭한 후 탄생한 계획은 '꿈 퍼즐'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연극'을 큰 흐름으로 한 진로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의 진로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이 토론했다. 진로에 관련해선 우리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정말로 조심스러웠다. 또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네 꿈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멘토링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의 초심을 떠올려 보았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네 모습이 될 수 있어.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야.” 전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사소한 것이라도 잘하는 것을 떠올려 보고,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 보는 것. 그것이 진로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 첫걸음이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기로 했다.

4. 우수사례



나흘 동안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꿈 퍼즐'과 연극 기획을 끼워 넣었다. '꿈 퍼즐' 시간에는 도화지에 아이들이 현재의 자기 모습과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 마지막 날 모든 그림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 보기로 했다. 꿈 퍼즐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진로에 관한 갈등과 해결 과정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리는 이번 겨울 00 고등학교 아이들과의 만남은 어떤 특별한 만남이 될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00에 도착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처음 본 기분은, 신기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다빈(가명)이부터 당차고 명랑한 슬기(가명)까지 스무 명이 조금 되지 않는 아이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졌다. 궁금하고 들뜬 마음으로 꿈 퍼즐 첫 시간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꿈 퍼즐 시간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여러분의 열일곱 살 '현재 모습'을 그려 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성격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현재 롤 모델을 각자 자유롭게 말해보고, 그 모습을 도화지에 그려 볼게요!"

나눔지기들과 아이들 모두 색연필을 들고 노트에 그 대답을 써 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때, 희민(가명)이라는 아이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선생님, 저는 장점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음, 그럼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써 볼까?"

"저는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일본어로 된 애니메이션이요."

"오, 그럼 일본어를 많이 들었겠네?"

"네, 그렇지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봐봐, 쌤은 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글씨 쓰는 거야. 나는 글씨를 컴퓨터로 찍어 낸 것처럼 잘 쓸 수 있단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도 써보자.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희민이는 펜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생각에 빠졌다. 아이들을 살펴보니 다들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을 도화지에 잘 그려보고 있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민수(가명)는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아이돌 그룹 엑소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은 한구석에 'EXO'를 그려놓는 등 각양각색의 그림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모두 나누어준 도화지의 반을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 채운 채 꿈 퍼즐 첫 시간이 끝났고, 연극 시간이 다가왔다.

연극 첫 시간에는 사흘 후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공연하게 될 연극의 스토리를 짜고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토론 끝에 나눔지기들과 배움지기들이 같이 정한 연극의 내용은 꿈을 정할 수 없는 아이, 꿈이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부딪힌 아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 이렇게 세 친구가 한 캠프에서 만나게 되어 갈등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었다. 꿈을 정할 수 없는 아이는 꿈 퍼즐 시간에 생각이 많던 희민이가 맡기로 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부딪힌 아이는, 실제로 연기자 꿈이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은영(가명)이가 맡기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는 분위기 메이커인 슬기가 맡기로 하였다. 다른 아이들은 연극 중에 출춤을 배우고, 무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바쁜 활동 사이사이 대본연습, 춤 연습을 하면서 캠프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빠르게 지나갔고, 꿈 퍼즐의 나머지 반을 미래의 내 모습으로 채우는 시간이 찾아왔다. 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 지금 마음에 두는 직업이 있다면 그 모습을 그리되, 꿈은 꼭 직업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니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면 되었다. 예를 들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배낭과 여권을 그려 넣었고,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니겠다며 사진기를 그려 넣는 아이도 있었다.

처음에 망설이던 아이들도 조그맣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마다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자신만의 희망을 품고 있음을 느꼈다. 그 희망을 모두 모아서 칠판에 "DREAM"이라는 한 글자로 완성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큰 물고기처럼 자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다.

꿈 퍼즐의 완성과 함께, 사흘 동안 준비해온 연극도 완성되었다. 대사의 양도 많았고 연출하기도 어려워서 모두 걱정이 많았던 연극이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관객으로 와 계신 연극의 막이 올랐다.

연출팀의 아이들이 직접 스토리보드에 그린 대로 무대 소품들을 날랐고, 세 명의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와 연기를 시작했다. 역시나 3일 동안 외우기엔 너무 많은 대사였는지, 기억을 더듬는 아이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지만, 곧 그 마음은 괜한 걱정이 되었다.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의 대사를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 가며 감정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항상 엄마 아빠가 바라시는 대로 했어요. 벗어나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싫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라며 연기자가 꿈인 극 중의 은영이 이자 현실의 은영이가 말할 때는 나눔지기들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긴장을 풀고 연극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같이 즐거웠고, 춤을 미처 다 외우지 못해 모두 반쯤 막춤을 출 때는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배움지기와 나눔지기가 다같이 '거위의 꿈'으로 합창을 할 때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흘간 연극을 준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웃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완성한 꿈 퍼즐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대본에 일일이 줄을 쳐 가면서 적극적으로 연출 팀을 이끌던 현지(가명), 장난치면서 하기 싫은 척하다가도 남몰래 노래를 배워 가던 성우(가명), 정말로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게 된 희민이, 그리고 이 밖에 모든 아이가 캠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 얼마 후, 00 고등학교 페이지에 올라온 아이들의 입학식 사진을 보고 앞으로 수많은 날 동안 이 아이들이 써 내려 갈 연극의 다른 페이지들이 궁금해졌다. 거위의 꿈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노래가 끝나면 캠프가 마무리되고, 제각각 다른 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모인 아이들, 그리고 우리 나눔지기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영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여기 모여서 노래를 같이 불렀던 우리를 떠올리고, 힘들어하고 어두운 날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눔지기들에게도, 배움지기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었고, 나흘보다 더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기억하고, 따라준 00 고등학교 멘티들에게, 그때는 부끄러워서 못 했지만 정말로 고맙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4. 우수사례



수기 분야

- 제목 : 겨울에 만난 가장 뜨거운 사람들
- 수상자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도민영



2015년의 끝자락부터 준비해왔던 SⅢWA 지식봉사캠프는 2016년의 첫 달이 지나갈 무렵 열렸다. 이번 캠프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더불어 배움 자기뿐 아니라 나눔지기 또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식상한 체험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나눔지기들은 “새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꾸려나갔다.

1일 차 “우리, 어색한가요?”

캠프 당일, 예상치 못한 한파로 날이 몹시 추워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반, 오랫동안 계획했던 활동을 실제로 하게 된다는 설렘 반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을 정리하고 자리에 이름표를 두면서도 벌써 캠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배움지기들이 도착해 자리를 채워갈수록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미리 준비한 다과를 나누어주며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사리 깨지지 않았다. 4일 동안 함께할 친구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내 캠프가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게 될 줄은 몰랐다.

1일 차 활동은 아이스 브레이킹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만약 일반적인 자기소개와 형식적인 인사만이 이루어졌다면, 캠프 초반에 배움지기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일 차 담당 팀원들은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점’을 팀원들과 나눈 후에 다른 조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도록 해 자칫 식상할 수 있는 활동을 재미있게 진행하였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화/드라마 재현 게임’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은 지양하였고, 여러 게임을 시연해본 후 ‘영화/드라마 재현 게임’을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으로 결정하였다.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여 팀원끼리 장면을 흉내 내거나 제목을 연상시키는 소품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고, 다른 팀원들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인지를 맞히는 게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팀끼리 학교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콘셉트를 정해 사진을 찍으면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캠프 첫날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기억이 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캠프의 시작이 좋았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새삼 1일 차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약 1년 동안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던 우리 나눔지기들의 팀워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하루였다.

2일 차 “우리를 배우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

첫째 날에는 팀을 짜 소수의 사람과 교류를 더 많이 했다면, 둘째 날에는 전체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단체 게임을 진행하고 자아 탐색 또한 시작하였다. 몸 풀기 게임으로는 ‘조랭이떡 게임’과 ‘릴레이 경주’가 진행됐는데, 사실 몸을 풀기만 하는 게임은 아니고 몸을 풀고 마구 쓰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이고 싶다.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게임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오랜만에 땀을 흘리며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다. 그다음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보물찾기와 유사한 명언 게임이었다. 사회자가 각 팀에 명언을 주면 팀원들은 잡지에서

알맞은 글자를 오려 명언을 완성해야 하고, 완성한 후에는 사회자가 준 암호 지도를 해독해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었다.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며 팀 활동에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후에 진행된 자아탐색 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자아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치관 경매와 인생 그래프 그리기, 묘비명 적기로 총 세 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는 ‘20살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해 웬지 모르게 벅찬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나갈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필로 사각사각 그려낸 인생 그래프와 같이, 인생은 다양한 색채를 섬세하게 그려낼 수 채화가 아닐까? 매 순간의 선택이 이루는 하나의 작품, 배움지기과 나눔지기 모두가 자신에 꼭 맞는 인생을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묘비명을 적어보는 시간에는 배움지기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든 시간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경험이었다. 배움지기 친구들이 나이가 어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묘비명을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삶은 고통뿐이다’라는 말처럼, 인생에 끝이 없다면 아주 많은 일이 가치를 잃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매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지기과 나눔지기 모두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구태여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아 탐색과 인생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자아를 탐색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대학에 와서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마련해준 2일 차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3일 차 “대학생활의 꽃, 프레젠테이션!”

3일 차의 문을 열어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팀플레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팀플레이는 팀을 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과제가 많은 중·고등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것은 대학생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자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대학생들 체험과 더불어 배움지기들이 발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총 두 개로, ‘동화 바꾸기’와 ‘시와 흡소핑’이었다. 동화를 바꾸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를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결말을 바꾼 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다. 또한, 팀원 중 한 명을 골라 흡소핑 방송을 하는 활동은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용, 분담하는 역할 등은 달랐지만, 그 과정은 대학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칫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일 수 있었는데 많은 배움지기들이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피드백을 해주어 개인적으로 부듯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방법과 팀플레이가 어떤 활동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배움지기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 그 후에는 ‘쉬어가는’ 프로그램인

4. 우수사례



미니 골든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보다는 난센스나 일반상식 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끔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참가자들이 대거 탈락해 패자부활전을 자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크게 웃던 여러 친구의 모습이 기억난다. 혹시 지루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지만, 고민하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즐거워해 그간의 고생이 전부 사라지는 듯했다.

골든벨에 이어 진행된 프로그램은 바로 1:1 멘토링이었다. 배움지기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나눔지기들이 무언가 도움이 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더욱 뜻 깊은 캠프가 될 것으로 생각해 진로 상담 시간을 준비하였다.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진로에 관해서는 멘토가 없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다. 누군가 '경험과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꼭 겪을 필요는 없는 일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욱 단단해졌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내게도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었다면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즐겁고 벅찼다. 3일 차는 캠프의 주제를 관통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팀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민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캠프에 있어 가장 진지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동시에 시원섭섭하기도 했다. 내가 3일 차 활동에서 느낀 많은 것들이 배움지기들의 가슴에도 닿았기를 바란다.

4일 차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오지 않을 것 같던 캠프의 마지막 날이 밝고, 우리는 첫 프로그램으로 00 CGV에서 만나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캠프 내내 짝꿍이었던 나눔지기과 배움지기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덕분에 배움지기에게서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도 듣고 더욱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영화를 본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3일 차에 진행된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을 진행하였는데, 1등과 2등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배움지기들에게 작은 상품을 주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 사람이라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등수가 매겨질 텐데, 캠프에서도 등수로만 상품을 준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완성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는데 전부에게 좋은 상품을 줄 수 없다는 점이 아쉽게만 느껴졌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는 모두가 모여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4일 차를 기획한 팀원들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덧붙이고 싶다. 캠프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생생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억은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받은 짧은 편지는 우리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4일 차 팀원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든다.



“캠프는 _____이다.”

가장 추웠던 새해의 길목, 열정이 가득했던 그 눈빛과 손짓은 내 마음을 적셔 쉬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다. 그 저 지나가는 말로 넘어갈 수 있었던 말들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잠시 잊고 살았던 가치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캠프는 열정이다. 사회에서는 종종 열정이라는 단어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정’이 지니는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다. 열정은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행복의 원천이다. 이번 캠프는 나눔지기과 배움지기 모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열렸으며, 그렇기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덕분에 사전에 기획했던 많은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열정이 결여된 사람들이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두가 영화 20도에 이르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던 모습과 암호 지도를 풀며 캠퍼스 이곳저곳을 누비던 모습이 떠오른다.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려는 배움지기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캠프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 오는 따뜻함은 열정으로 이어져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겨울에 만난 가장 뜨거운 사람들, 2016년의 시작이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배움지기과 나눔지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싶다. 더불어 이번 캠프가 모두에게 2016년을 향해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수기 분야

- 제목 : ‘1’의 의미
- 수상자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의공학부 하진석

우수상

중간고사가 끝나갈 무렵, 설 새 없이 울려대는 메신저 소리가 반갑기만 하다. 가을 향기가 완연한 00초등학교의 전경을 찍어 보내며 나의 안부를 묻는 이 아이들과의 인연은 올해로 4년, 횡수로는 6번째가 되고 있다. 평소에도 가끔 오던 문자가 오늘따라 집중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선생님! 이번에도 오세요? 안 오시기만 해봐요! 미워할 거예요. 꼭 놀러 오세요.”

이번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에도 참여할 것을 협박하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에 웃음 지었다. 평소 아이들과의 밀당(?)을 즐기는 ‘나’지만, 6번째 방문이기 때문일까?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매년 캠프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경험해 왔기에, 이번 캠프는 더욱 더 부담되었다. 더구나 내 대학생할 마지막 캠프가 될 이번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 마지막 날의 눈물이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내 청춘을 아름답게 꾸며준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지난 4년간의 기록 >

첫 만남은 2012년 7월, 제7기 대학생 지식멘토링 캠프를 통해 시작됐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곳을 찾아가 지식봉사를 해야 한다는 결심 아래 결정된 곳이었다. 00분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으며, 검색 포털을 사용해 교통편을 검색해보았지만, 이 또한 목록이 없었다. 방문 후에 알게 사실은 00분교를 지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4. 우수사례



단 6대뿐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캠프를 다큐로 찍고, 내레이션을 했다면 아마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곧 다가올 재앙들을’

5박 6일간 예약했던 방은 업체 측의 오류로 인해 3박 4일로 예약되었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강당에서 간단한 이불만 덮고 잠을 청하기도 하였고, 음식을 사러 갔다가 복귀 편 막차인 6시 30분 버스를 놓쳐 끼니 문제를 넘어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쓴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4년간 그리고 6번째의 방문 속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기록을 남긴 것 같다. 총 45명의 나눔지기, 333명의 누적 참여 배움지기 수, 참여 일수 40일, 총 봉사시간 231시간, 단 한 개의 중복수업 없이 75개의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첫 만남에서 1학년이었던 친구는 어느덧 자신이 5학년이 된다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이렇듯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나에게 ‘1’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 닿는다.

〈‘1’의 의미〉

언제나 첫 방문 같은 설렘

대학생활을 가장 뜻 깊게 만들어주었던 지식멘토링 캠프는 2016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년간의 기록을 마무리 지었다. 6번째 방문이면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한번, 한 번의 방문이 매년 새로운 것은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덕분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졸업생마저 캠프에 방문·참여하여 조교가 되어준 고마운 아이들이다. 여담으로, 그곳에 돌아가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그녀들(?)의 달콤한 프러포즈에 매년 거절하며, 선생님이 아이를 낳으면 너희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달래보곤 한다. 아마 평생을 걸쳐 받아야 할 사랑 고백과 프러포즈를 미리 받은 것 같아 가끔은 내 미래가 두렵기도 하다.

가장 많이들은 인사말은 학부모임들의 선생님 또 오셨냐는 따뜻한 말이다. 점심과 저녁을 사 먹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곳이기도, 많은 학부모임에서 우리의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시곤 하였다. 방학시즌이 시작할 무렵, 이번에도 오실 수 있으시냐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전화와 더불어 매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으며 좋은 숙소를 값싸게 제공해주시는 펜션 아주머니도 캠프를 방문하는 나를 더욱 설레게 한다. 이곳에 가면, 내가 봉사활동을 가지만, 오히려 아이들과 고마우신 분들께 차유를 받고 돌아온다.

이렇듯 나를 설렘 가득하게 맞아주는 대자연 속의 시골학교이지만, 이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 대도시만큼의 치열한 경쟁은 아닐지라도, 공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의 진정한 재미를 알려주고 싶다. 성적을 잘 받는 기술보다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었고, 평소 내가 받아왔으면 좋았겠다는 방식의 재미있고 참신한 교습방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단 하나뿐인 차별화된 수업 - 수혜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유도 수업

캠프를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선생님 각자의 별명을 짓는 것이다.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나는 과목을 흥미보다는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라 공부에 재미를 가졌었던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 선생님의 이미지와 흡사한 별명을 하나씩 부여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한 명당 한 부위씩 그려가며 전체의 얼굴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선생님께 집중시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고학년의 주도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이는 ‘수혜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유도 수업’이라는 나의 큰 프레임에 따른 수업 방식이다.

중복 없이 구성해온 75개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개의 수업은 ‘민주주의의 꽃, 투표’와 ‘모두의 대한민국’ 수업이다. ‘투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4명의 유명 연예인(김연아, 유재석, 노홍철, 송지호)과 캐릭터(타요버스, 코난, 짱구, 보로로)의 경선이 이뤄졌다. 나는 중앙선거위원장으로, 각각의 선생님은 각 후보 지지자로서, 후보자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교로 참가한 중2 졸업생들은 초콜릿을 나눠주며 노홍철을 뽑아주라는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노홍철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정지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대여한 투표함과 투표소를 설치, 투표하고 나온 사전설문조사와 PPT를 통한 투표중계방송의 오차범위를 살펴보았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흥미에 가득 차 있었고,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의지를 다 시금 새겨볼 수 있었다.

‘모두의 대한민국’은 한 모바일 게임에서 착안하여 구상한 수업이다. 저학년과 고학년이 두루 섞여 있는 수업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역사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발적인 호기심을 끌어낼 방법으로 부르마블을 게임 방식을 접목한 역사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주사위를 던져, 각 칸이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로 기록된 게임판을 질주한다. 각 칸에 멈추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게 되고, 민주주의의 역할을 자초하였던 곳에서는 칸을 무르거나, 벌칙을 받았게 되지만, 성장을 이룬 곳에서는 상을 받거나 벌칙을 받은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위해 짧은 동영상과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고, 집중도와 만족도는 기존의 수업 방식에 비해 대단히 높았다.

이 외에도, 시장의 변화 속에서 각 조에 부여된 돈을 통해 재료를 산 뒤, 간식을 만들어 먹는 시장경제와 각국의 기술력과 자원 노동력을 단순화하여 무역을 체험해보는 수업 등을 통해, 국·영·수에 집중되어 흥미를 잃기 쉬운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나만의 수업을 만들어나갔다.

캠프 기획부터 실행까지 one-point process

지식멘토링 캠프는 크게 기획, 구성, 회의, 시뮬레이션, 수업, 피드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수업 제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서 시작된다. 선생님들은 각자의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계획서와 구성 및 진행방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회의를 통해 구성을 다졌고,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전 총 3차례의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하여, 우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수업일 수 있는지를 피드백하며 확인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행방식 덕분에 아이들은 즐겁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 또한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캠프 이후에도 아이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나눠주었으며, 이러한 진행방식을 책으로 발간(00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공조)하여, 이후 캠프에 참여하는 타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식멘토링 캠프를 통해 성장하는 나눔지기과 배움지기가 더 많았으면 하는 나의 작은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캠프 이후에도 지속되는 1:1 매칭 멘토링

거리 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문제점, 다양한 체험에 대한 한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을

4. 우수사례



통해 견문을 넓히기에 제한이 있는 아이들에게 꾸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캠프 이후에도 1:1 매칭이 지속하고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통해, 안부와 자신의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회성 캠프가 아닌 진정한 교육, 진정한 멘토링이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 - 우리는 하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게 해준 지식멘토링 캠프와 00초등학교에 대한 나의 애정은 조금 특별하다. 한, 두 번 참여한 나눔지기들에게는 지식멘토링 캠프가 하나의 단순한 여행처럼 느껴질 것이다. 혹은 자신의 스펙에 한 종류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의 본질'과 '나눔'이라는 지식멘토링 캠프 본연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

캠프를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나눔지기와 배움지기가 서로 너무 닮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통해 꿈을 설정하고 고민하며 하루하루 노력해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나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었다. '나눔은 곧 채움이다.'라는 말이 실로 와 닿았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선생님도 똑같아."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꿈을 찾아가는 항해에서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을 때, '나도 함께'라는 마음. 혼자자 아 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마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 아이들과 함께한 4년의 기록 속에서 '1'이 마음에 자리 잡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수기 분야

- 제목 : 나눔과 배움의 경계를 허물다.
- 수성자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경제학과 김수인

장려상

"요즘 중학생들은 우리 때랑 다르네,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나를 나눔지기로 만들어준 친구들을 만나기 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어 그때의 기억이 점차 흐릿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을 만난 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후회 없는 맘 흘림이었다.

멘토가 된다는 것,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당연하다 여길 것이고 실패한다면 내가 나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여전히 '멘토링'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는 없었지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나눔지기'라는 표현이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에 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이전의 활동사례들을 찾아보았고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기도 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물어왔던 꿈을 들추어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냈다. 우리는 도미NO, 도전 없는 미래는 없다는 팀명 아래 00중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캠프가 되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진 후 광주로 떠났다.

캠프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학교에 미리 도착하여 일주일간 아이들과 함께할 곳들을 미리 둘러보았다. 내일이면 아이들로 꽉 차게 될 교실이 주인을 기다리는 듯 고요했고, 아직은 텅 빈 곳이었다. 최대한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팀원들은 잠을 줄여가며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우리 팀원들에게 귀속된 것이기에 최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다. 드디어 캠프 첫날,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익숙하다는 듯 자리를 찾아서 앉는 아이들, 친구를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조금은 어색하게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의 자기소개로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40명 정도의 아이들을 7개의 조로 나누었고 내가 맡은 아이들은 네 명이였다. 학년이 모두 달라 아이들도 서로를 잘 몰랐고 처음이라는 어색함에 자신감 넘치는 말보다는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분위기를 좀 더 즐겁게 만들고 싶어 농담도 해보고 질문도 했지만 나에게 편하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아이는 없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각자 친구들을 찾아가 놀기 바빴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친구와 더 놀지 못해 아쉽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곤 했다. 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서운한 표정을 보이며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 표정 하나에 나의 마음은 철렁했고 조금했다. 유난히 우리 조만 웃음소리가 흐르지 않는 것 같아 초조했고 모든 것이 내 잘못된 것만 같았다. 그렇게 앞으로의 일주일일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2일 차는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았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였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들에게 대학가는 방법이나 공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이었다. 생각보다 꿈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아름다운 꿈을 응원했으며 아이들의 진지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우리가 모두 그랬듯, 게임 시간을 가장 기대했고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참여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감정인 흐뭇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를 더 힘이 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게임 시작 전 규칙을 설명해주고 조별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 조 아이들은 내가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 주었고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말 사소한 일로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은 웃으며 돌아갔고 운동장은 우리 팀원들이 함께 정리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안전 문제로 걱정과 긴장을 놓칠 수 없었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팀원들은 몸이 젖은 채로 숙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오랜만에 중학생으로 돌아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즐거워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았기에 다음 날 학교로 오는 아침이 설레고 기대되었다. 첫날보다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아이들도 조심스럽지만 익숙하게 인사를 했고 점차 웃음을 띠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를 찾기 바빴던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나에게 "선생님, 게임을 해요"라는 말을 건넨 순간이 아마도 캠프 기간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다. 게임을 하며 아이들은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했고 웃고 떠들며 쉬는 시간이 끝난 것을 아쉬워했다. 조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좀 더 단단히 뭉쳤다. 질문도 많아지고 승부욕도 넘쳤다.

4. 우수사례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을 위해 피자를 먹으며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들은 빵에 촛불을 켜고 나눔지기를 위한 롤링페이퍼를 준비한 것이다.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고 고맙다는 말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모두 전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롤링페이퍼에 적힌 다하지 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을 많이 못 해서 아쉬워요.” 한 아이의 마음이다. 나는 왜 그렇게 조금했던 것일까. 중학생 시절, 아니 지금까지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겐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혹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나도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해줄 것이라는 혼자만의 기대를 하고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어쩌면 실망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이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순간 너무 부끄러웠고 미안했다. 아이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첫 만남은 항상 낯설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 기대감과 낯설음이 공존했다.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나눔지기들보다 사전정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은 더욱 낯설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끝으로 캠프는 끝이 났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더는 남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익숙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조용해진 빈 교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끝임을 느꼈다.

뜨거웠던 여름, 짧지만 강렬했던 일주일간의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다. 한때 선생님의 꿈을 꾸었던 나에게 아이들은 잠시나마 꿈을 이루게 해주었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떨림과 긴장감, 동시에 가지 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배움지기로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확실한 건 그들은 마음을 표현했다. 일주일간 함께해서 즐거웠고 고맙다는 빵과 롤링페이퍼에 담긴 메시지는 캠프를 계획한 나눔지기들에게 수고했다는 보상과도 같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에게 남긴 여운이 앞으로의 삶에 귀중한 추억이 되리라는 것이다. 캠프가 끝에 접어들면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사이의 경계는 무너졌다. 친밀감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들이 배움지기가 되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무너졌다. 나누는 것만으로 나누는 자와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상대방, 이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나눔지기가 되고 싶다.

‘요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밝고 순수했으며 열정과 사랑이 넘쳤다. 우리는 아이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잊혀가는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어 행복했다.



수기 분야

- 제목 : 모두가 꿈을 꾸려면 대화가 필요해
- 수상자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영문학과 반주리

장려상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단발머리 여중생 시절, 수학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노래 첫 구절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 울립니다. 그때 배웠던 삼각비나 함수의 정리는 흐릿한 기억 너머 어딘가로 흘러갔지만, 이 노래만큼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아직도 입가에 맴돌 정도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노래와 같은 희망을 손에 쥐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계획’ 없이 멘토링에 참여했다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부듯한 성공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나눔지기의 위치에서 ‘소통’은 단순히 수혜기관 배움지기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역시 크게 세 개의 기관(한국장학재단, 제가 재학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당시 수혜기관이었던 00고등학교)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2015년 대학생 지식멘토링 활동 소감을 기관, 나눔지기, 배움지기 사이의 대화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기관과의 대화(한국장학재단, 한국외대 학생지원팀, 00고등학교 최OO 선생님)

2015년 12월의 첫날, 학교 홈페이지 장학 관련 게시판에서 대학생 지식멘토링 관련 공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스스로 기획해볼 수 있다는 점,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 배움지기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저와 제 친구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곧바로 메신저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 회의를 하며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러 기관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문의전화를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멘토링 활동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한국외대 학생지원팀에도 저희 팀 계획에 꾸준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며, 외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수혜기관이 경기도에 있는 00고등학교로 정해진 이후에는 담당 선생님이셨던 최OO 선생님과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배움지기 학생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점, 대학생 나눔지기로서 항상 인식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혜기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장학재단, 재학 중인 대학교, 수혜기관과 기본적인 소통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나눔지기끼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멘토링 준비를 하며 유난히 추웠던 2015년의 겨울을 열정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 나눔지기끼리의 대화(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나눔지기 입장에서 멘토링을 준비하는 기간인 12월은 바로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험을 제외하고도 나눔지기들이 각자 학기 중에 하던 아르바이트나 조별 과제 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멘토링을 위해 매일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앞으로는 포이드림팀 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되,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계속해서 피드백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각자 일주일 동안 생각해볼 점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고, 다음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 날까지 온라인에서 서로 자료를 올리고, 올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눔지기 여

4. 우수사례



셋 명이 모두 활발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회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이후 겨울방학에 수혜 기관에 가셔도 카페에 올린 정리된 자료를 차례대로 사용하는 등 현장의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3박 4일 동안 수혜기관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매일 밤 여덟 시부터 열 시까지 나눔지기끼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하루를 돌아보며 멘토링 중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화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배움지기와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점, 배움지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나눔지기가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 날 멘토링 시간에 바로 반영되기도 하며,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3. 배움지기와 대화(00고등학교 예비 고 3학생들)

무엇보다 부듯한 것은 바로 배움지기와 대화입니다. 사실 사전 준비를 하며 나눔지기끼리 가장 기대하는 동시에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는 ‘배움지기와 우리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마찰을 빚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는데다가, 저희는 선생님의 위치도 아닌 대학생 언니 오빠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 배움지기들이 처음부터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포이드림팀이 낸 결론은 결국 ‘나눔지기답게 해보자.’였습니다. 저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 먼저 배움지기에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활동 기간 동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혜기관 기숙사에서 회의하면서 수정해나갔습니다.

00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3박 4일 동안 큰 문제없이 저희 나눔지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배움지기들은 멘토링 활동시간 외 쉬는 시간에도 나눔지기들과 계속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근한 교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는 몇몇 배움지기들이 아침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등 서로 유대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진행했던 설문 조사와 모두가 함께 작성한 롤링페이퍼는 감사와 서로에 대한 격려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번호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끝나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배움지기와 대화는 멘토링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제가 나누고자 했던 활동 소감 및 성공 사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링 활동 종료 후에도 저희 포이드림팀은 00고등학교 배움지기들과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멘토링 기간 중에는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나, 활동 마지막 날에 연락처를 묻는 배움지기들에게는 번호를 주면서 공부나 학교 생활을 하다가 힘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하며 멘토링이 3박 4일만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지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움지기였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도 학습 조언을 주거나, 모의고사가 끝난 날이면 격려를 해주는 등 나눔지기 각자 열심히 추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은 배움지기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매주 영어 공부한 것을 메신저로 찍어서 보내기’ 약속을 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에게서 영어가 조금 보인다고 연락이 올 때, ‘옆에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공부가 사실 그렇게 어렵고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할 것은 아니었네요.’라는 전화를 받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부듯함을 느끼고, 제 스스로가 멘토링을 통해 더 나은 사

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멘토링 활동은 여러 기관과의 소통, 나눔지기끼리의 대화 그리고 배움지기와 끊임없는 피드백이 없었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멘토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인상 깊게 느낀 겨울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 분야

- 제목 : 지식 멘토링, 사계절을 담은 여정
- 수상자 : 상지대학교 중국학과 신하은

장려상

“지식 멘토링, 사계절을 담은 새로운 여정”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시간의 주기성을 띠고 있어 일정한 듯 보이지만 각 계절마다 새로운 기쁨과 재미를 선사한다. 나는 이번 지식 멘토링을 통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계절의 맛을 다 체험할 수 있었다. 멘토링이란 여정 길에서 봄에는 싱그러움 새싹이 피어나는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여름에는 화창한 태양에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 전해오는 아이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겨울에는 나만의 고찰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사계절의 멘토링 여정 길을 통해 멘티들과 함께 성장하였고, 이번 멘토링은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추운 겨울 여정 길, 아이들의 난로가 되어주기 위해 출발하다.”

추운 겨울 1월, 나는 설렘을 안고 4일 동안의 짧고 긴 여정을 떠났다. 그곳은 바로 강원도 00에 있는 00중학교였다. 추운 혹한기에 캠프가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는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이번 캠프를 통해 나눔의 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지식 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번 지식 멘토링은 나에게 첫 번째 멘토링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 멘토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이라 두렵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멘토의 역할로 다가간 난로처럼 뜨거운 열정과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 여정 길, 아이들의 난로가 되어주기 위해 출발하다.”

추운 겨울 1월, 나는 설렘을 안고 4일 동안의 짧고 긴 여정을 떠났다. 그곳은 바로 강원도 00에 있는 00중학교였다. 추운 혹한기에 캠프가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는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이번 캠프를 통해 나눔의 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지식 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번 지식 멘토링은 나에게 첫 번째 멘토링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 멘토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이라 두렵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멘토의 역할로 다가간 난로처럼 뜨거운 열정과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혹한 겨울,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다.”

나의 새로운 여정의 출발은 고되고, 힘든 겨울이었다. 이번 12기 지식 멘토링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지만 처음에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처음 참여한 멘토링이었고, 아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멘티들에게 유익한 시

4. 우수사례



간을 제공해 주고 싶어 전공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작하였다. 또한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서 멘티들에게 여행지를 통해 타 문화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심을 다해 준비하였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도 하게 되었다.

“따스한 봄, 나의 마음 속 ‘새싹’을 피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다. 두렵고, 차갑게 얼어있던 나의 마음이 따스하게 녹기 시작했다. 나에게 봄을 가져다준 것은 지식멘토링 사전교육 중 강사님의 말씀이었다. 강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말에 “경청”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통”을 강조하셨다.

이전에는 나는 “소통”보다 “가르치는 기술”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 같다. 강사님의 한 마디를 통해 나는 아이들에게 “잘만 가르쳐 주는 멘토”보다는 “공감하며 경청하는 멘토”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나의 마음은 봄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이들과의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시간에도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4조에 속한 멘토가 되어 멘티들과 함께 팀명도 만들었다. 멘티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사조라는 팀명을 만들어 불사조처럼 뜨거운 열정을 태워보기로 약속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으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봄의 새싹이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 여름을 알리는 듯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너와 우리가 가까워진 시간.”

추운 겨울에 시작된 캠프였지만 동영상 만들기 활동을 통해 멘티들과 다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만의 창의성과 순수함을 볼 수 있게 해 준 프로그램이었고, 멘티들에게 “협동”의 참된 의미를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뜻 깊었다. “해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은 노래 가사에 맞게 표현을 하였고, 새로운 동작들을 만들어 창작하였다. 동영상을 만들기 전 아이들이 표현을 어려워할 것 같아 걱정을 하였지만 따뜻한 햇볕 아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해성이라는 노래를 통해 나는 아이들이 큰 꿈을 품은 해성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행담 소개와 세계 음식 만들기를 통해 멘티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형성할 수 있었다. 나 역시도 아이들에게 세계 나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중국 유학 경험이 있어 아이들에게 중국 여행 유의사항과 여행의 좋은 점을 소개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세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직접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우리는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뜨거운 햇살 맞으며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 멘토링이 유익하고, 값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랐다. 노력과 맘을 통해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열매를 무르익는 가을, 우리의 마음 속 성장의 열매를 맺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아이들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공부법과 학과 별 진로 소개를 해 주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과연 흥미 있어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많은 의심

이 있었으나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아이들은 현재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 멘티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자신은 한자를 좋아하고, 앞으로 중국어를 공부해서 중국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아이를 보며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에 내가 더 열심히 배워 향후 아이들에게 이 전공을 공부할 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했다. 이 학습법과 공부법 프로그램을 통해 나도 한층 학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학습은 나를 위한 공부와 행복이기도 하지만 남에 배운 것을 나누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주면서 나 역시도 성장할 수 있었고, 내 삶의 자극제가 되었다. 여러 고민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꿈의 열매를 아이들에게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나도 더 큰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더 달려가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사계절은 반복되지만 우리는 꿈을 쫓고, 우리의 삶은 색다른 변화를 추구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년마다 일정하게 반복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한다. 한국장학재단 지식멘토링 캠프는 나에게 변화와 꿈같은 존재였다. 아이들과의 소통과 활동을 통해 4일간의 여정 속에서 사계절의 색다름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에게 지식 멘토링은 “단순한 여정”이 아닌 “해성처럼 빛나는 여정”이었다. 이번 지식 멘토링을 계기로 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해성처럼 빛나는 꿈을 위해 전진해나갈 것이다.



4. 우수사례

수기 분야

- 제목 :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 수상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박효정

장려상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늘 하는 대답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중에서도 ‘교육’의 힘을 믿는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나의 방법의 하나는, 멘토링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멘토링을 처음 접했다. 내가 멘토가 되고 같은 반의 친구 두 명이 멘티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했다. 함께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내가 직접 예비 시험지도 만들고, 설명도 하며 멘토링을 한 결과, 멘티와 내가 서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 함께 부동커안고, 기쁨의 탄성도 질렀다. 또, 다문화가정의 어린 멘티와 공부도 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멘토링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때문이었는지 대학교에 가서도 멘토링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지식나눔멘토링동아리 STEP-UP(스텝업)입니다!” 선배 기수로 활동할 때, 동기들과 함께 신입회원 모집을 하며 수도 없이 했던 말이다. 대학교 입학 전에 다짐했던 대로, 나는 지원서를 쓰고 면접에 합격하여 멘토링 동아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스텝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행사는 방학마다 열리는 몽(夢) 킴프(꿈을 키우는 캠프). 고교생들이 본질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한 캠프이다. 몽킴프의 모든 프로그램은 스텝업의 멘토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수많은 회의와 리허설과 피드백을 거쳐 매회 몽킴프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습지도반, 학생부 종합지도반을 나누어 1:1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학생부 종합지도반 멘토링은 이야기를 깊게 나누며 멘티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늘 영어 멘토링만을 해왔던 나에게 스텝업에서 접한 ‘진로’에 대한 멘토링은 너무나도 여신했다. 하지만 나도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고, 선배들도 고등학생 시절에 누군가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텝업을 만드셨다고 한다. 그렇게 스텝업에서 멘토링을 한 지가 2년이 되었고 지금은 동아리를 수료한 상태이다. 그 안에서 한 멘티와 1년간 멘토링을 진행했고, 세 번의 몽킴프, 여러 번의 몽(夢) 글몽(夢) 글(꿈을 그리다)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오자.” 이번 대학생 지식봉사캠프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다. 2016년 겨울에 이루어진 제12기 동계방학 지식봉사캠프는 스텝업 4기인 나와 동기들이 “스텝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활동이었다. 스텝업에서 멘토링을 하며 1명, 3~4명, 6명 등 여러 수의 멘티들을 담당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보기도 했고, 멘토들 각자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2년간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지식 나눔 활동이기에 그동안 겪은 것들을 다 쏟아 붓고 오자는 마음이짐으로 임했다. 기존 몽킴프에서 했던 자아탐색, 꿈 탐색, 전공탐색, 팀미션 활동은 물론, 8명의 멘토들이 각자 스토리텔링을 하는 멘토특강, 멘티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토크 콘서트 시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지막 활동이기에 그 현장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내 몸에 담아오고 싶었고 함께한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나눔지기로의 활동을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캠프 초반에,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었다.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아이들에게 갑작스레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대해 질문을 하니, 멘티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당연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한 반응이었고,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려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계속 다른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이번 멘티들은 유독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나를 진땀나게 했다. 아이들은 내가 겪었던 아이 중에서 학업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멘토들 모두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이들과 이름을 서로 외워서 불러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유독 어려워했다. 입소식을 하고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Ice Breaking,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자 하는 활동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멘티들의 마음엔 아직까지 Ice가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도 그래. 헤민(가명)이는 어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전,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여유를 적은 멘티가 있었다. “헤민이도 여유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하는구나. 언니도 그래. 언니는 평소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리스트를 적어놓는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여유 있는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하신 적도 있고, 주변에서 좀 쉬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스스로도 늘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 그런데 생각보다 잘은 안 되더라. 헤민이는 어때? 나에게 여유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멘티에게 다가가자, 멘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입소식에서 멘토 소개 시간에 내가 한 말과 같은 맥락의 상황이었다. “여기 온 멘토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께 모든 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아요.” 어느 때보다 내 모든 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캠프. 아마 내가 먼저 벽을 허물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멘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깊이 내려가서 내려와도 괜찮다고 몸소 보여주었기에 멘티도 용기 내어 답한 것 같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줄까?” 멘티들은 캠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책자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다. 그리고 항상 활동의 마지막은 같은 조의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다. 타인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어떤 멘티는 나에게도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했다. 정말 공유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마지막 순서로 미뤄두고, 용기를 내준 친구들부터 차근차근 공유시간을 가졌다. 나는 한 친구가 발표할 때마다 아이들과 박수를 함께 쳤다. 그리고 멘티들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짧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는 “우리,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자.”라고 말하며 경청을 유도했다. 그리고 다음 발표할 차례의 친구에게 앞 발표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을 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공유 자체를 어려워한 아이들이, 나도 생각지 못한 멋진 질문들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다. 한 멘티가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에게 여러 간호사 중에서도 굳이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질문했는데 경청했기에 할 수 있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었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멋진 질문이라며 질문한 친구에게 칭찬과 박수를 주었다. 다른 멘티들도 함께 박수쳐 주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용기 내어 발표하고, 경청에서 우려나오는 멋진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감동을 하였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경험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준 경험이 멘티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정말! 너무 감사드렸어요!” 캠프가 끝나고 배움지기 만족도 조사를 하며, 한 멘티가 작성한 말이다.

4. 우수사례



자아탐색과 꿈 탐색을 마치고 전공탐색 시간. 예상과는 다른 문·이과의 비율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진행했다. 멘토들의 전공, 대학 입학 전형, 대학 생활, 공부법 등 콘텐츠를 다양하게 잡아 멘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세 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를 마치자, 약 삼십 분 쯤 프로그램을 세 번 진행했기에 멘토와 멘티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도 구십 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기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멘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멘티가 궁금한 점을 끝까지 답해주고 있는 멘토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아, 이런 게 멘토링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멘토는 특강을 준비하며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어 다른 지역에 있는 친동생에게 집에 있는 자료들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며 특강을 준비하고, 멘티들이 궁금해 할까 봐 직접 캠프에 들고 온다. 멘티가 특강 이후에 질문하면 자료를 보여주며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책자 뒷면에 있는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덧붙인다. 문단 서두의 말을 한 멘티는, 두 가지 사례의 멘티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내가 가진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모습, 그리고 집중하여 듣고 있는 멘티의 모습에서 멘토링을 보았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나는 멘토링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분야를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기에, 교육 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멘토링은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중간에 잠시 멈추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걸쳐 하고 싶은,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멘토링은 엄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릴 적에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라는 곡을 들으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세상을 치유하자는,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나에게 멘토링이 그 방법의 하나다. 그리고 나는, 우리들은 멘토링을 통해 서로 성장하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있다.



수기 분야

- 제목 : 나의 '나눔' 이야기
- 수상자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김영광

장려상

2015년 유난히 더웠던 여름, 00으로 간 멘토링 봉사활동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 선물은 일종의 기쁨이었다. 00을 가기 전 나는 나눔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나눔이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 드린다면 그건 나의 '젊음'을 어르신들과 나누는 것이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손발을 돕는다면 나의 '건강함'을 나누는 것이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나의 재능이든, 추억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남과 함께 나누면 그것은 봉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지금부터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5살의 부산 출신 대학생이 땅 끝인 00으로 다녀온 나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군대 전역 후 복학한 2015년 1학기에 나는 RCY(대한적십자사)라는 봉사동아리에 들어갔다. 2015년에 창단된 동아리여서 정원이 10명 남짓이었었는데 그중 나를 포함한 7명은 전라남도 땅 끝 00으로 지식 멘토링 봉사활동을 떠났다. 처음에 회장 누나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 그 첫째 이유는 나는 누군가의 멘토(Mento)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자신도 없었다. 멘토의 정의대로라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유경험자'인데,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도움과 조언이 없었고, 그게 있더라도 그것을 조리 있게 전달할 능력이 내겐 없었다. 둘째로는 거리와 교통문제였다. 서울에서 00까지 약 4~5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또 00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약 7시간 정도 걸렸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로 가기 위한 버스도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었다. 한여름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실제로 멘토링 기간 동안 전라남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많은 고민들을 가진 상태로 멘토링 캠프를 가기로 하고 활동 준비를 시작했다.

활동내용부터 준비물까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융통성을 가지고 유쾌하게 준비했다. 활동을 준비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를 끝낸 우리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진 채 멘토링 캠프를 떠나게 된다.

멘토링 캠프와 관련된 다른 기억들은 아주 흐릿해졌지만, 처음 배움지기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선생님' 또는 '쌤'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때문에 몸서리치게 어색해지는 나와 멘토들. 친해지고 싶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기웃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곳의 어색한 분위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어색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모습도 제각각이었다. 앞니가 빠진 7~8살 아이들부터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까지 있었다. 성격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땀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부터 얌전히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까지 다양했다. 이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우리는 1일 차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진행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활동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할 것 없이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스마트 폰에 빠져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주 힘들었다. 이 점을 예상하고 우

4. 우수사례



리는 첫날부터 아이들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모든 프로그램을 팀별로 진행하고 활동마다 팀별 점수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활동 방식은 많은 효과가 있었다. 먼저 팀 내의 단결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쾌한 팀 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한 팀 내의 두 아이는 우리가 00으로 가기 2주 전에 책상 자리 쟁탈전을 벌이다 싸워서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팀별 활동을 통해 둘 사이의 악감정을 다 털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활동을 팀별로 진행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아무래도 팀별 활동을 보니 팀 내의 단결력은 좋아졌지만, 팀 간에는 단결하기보다는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활동의 마지막 순서로 아이들 모두를 한 팀으로 하고 멘토들을 한 팀으로 하여 활동을 한 번 더 진행했다. 조금 전까지는 경쟁하는 상대 팀이었지만 이제는 한 팀이 되어 움직이며 아이들 간의 단결이 도모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활동에 임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페어플레이(fair play)'를 강조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는 '기뻐할 일'이 아니며, 이러한 규칙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것도 가볍게 일러 주었다.

실시한 활동 중에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했던 활동은 '도전 99초'와 '케이크 만들기' 활동이었다. 아이들은 '신문지에 올라가서 5초 버티기'와 같이 단합해야만 해낼 수 있는 활동들을 99초 이내에 모두 성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24살인 내가 해도 재밌을 것 같은 활동이었는데, 아이들도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 대하여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평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봉사 활동 시 주의할 점으로 여길 수 있겠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불공평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가령,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 중에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었는데,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고학년 아이들이 불공평함을 호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상품도 공평한 기회를 통해 전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지만, 그것이 모든 아이에게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깨달았다.

그렇게 어느덧 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내가 그들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캠프를 왔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 밤이고 내일이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아이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었던 멘토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다른 건 몰라도 캠프 동안 아이들은 나의 행동부터 사투리가 배어있는 말투까지 자주 따라 했다. 그래서 나는 말과 행동을 조심히 했고, 뒷정리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일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했다. 아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다.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말과 행동을 유도하

는 것은 멘토의 역할이다.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었고 이는 멘토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생각해봤을 때 나의 언행은 누군가에게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바르고 선한 말과 행동이 타인의 마음에 감동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지 나는 타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다. 00은 타인에 선한 향기를 피우는 법을 나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준 것이다.

또 한 가지 내가 배운 것은 나눔의 기쁨이다. 나는 배움지기 아이들에게 나의 젊은 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된다면 겪게 될 20대의 시간을 나는 아이들에게 미리 조금 나누어 준 것이다. 또 내가 나눔 노력은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다시 아이들에게 되물려서 나누었으면 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나에게 없는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고, 우리는 서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순간에 나는 기뻐했다. 이러한 나눔은 무엇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롯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00 멘토링 캠프를 계기로 나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이어 나아 고자 송실대학교 봉사동아리 RCY의 15년도 2학기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인근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정기적으로 아동 봉사 및 기타 봉사들을 다니고 있고 16년도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시협의회 봉사부장 직을 맡아 서울지역 대학 RCY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나는 00 멘토링 캠프를 겪은 후 어디에서든 늘 남과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수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의 화두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혹시 '경쟁'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빠져 남과 무엇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남과 나누는 것의 기쁨은 현실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떠나는 여행의 기쁨보다 크고 지속한다. 지금 만약 그때의 나처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눔을 떠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눔의 기쁨을 배우려 말이다.



4. 우수사례



수기 분야

- 제목 : 아이들을 통해 다녀온 나의 꿈 여행
- 수상자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이윤지



[나눔지기가 되고 싶어]

저는 재수를 하여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 대학생활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 좋다, 이 교수님이 잘 가르치신다고 하더라, 이게 되고 싶으면 이런 것을 준비하면 좋다고 하더라... 친구들 덕분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낸 1년의 경험이 저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멘토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멘토링 봉사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국장학재단 지식 봉사 캠프 나눔지기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시간이 부족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생각에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꿈이라는 주제 아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팀원 각자 역할을 정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 일을 나눴습니다. 희망하는 곳에 계획서를 보내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연락이 왔고 저희는 지식봉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교육을 받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직업 카드도 만들고 이름표도 따로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외웠습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직접 캠프를 진행한 시간보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캠프를 기다렸습니다.

[3박 4일간의 꿈 여행의 시작]

00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00지역 아동센터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말 그대로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가니 금방 00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캠프를 진행할지 원장님과 상의하고 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원장님이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의 자습을 봐주고 준비해온 프로그램은 오후에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각각 아이들을 몇 명씩 맡아서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저는 첫날 수원이(가명)를 맡았습니다.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는 수원의 모습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수원은 제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바로바로 이해하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수원이가 잘하는 부분을 계속 칭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자습이 끝난 후 아이들과 서로를 소개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 18명의 명단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간 기간이 방학 중이라 없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활동을 위해 나눔지기 2명당 아이를 나눠서 3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을 정하고 친구들 앞에서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팀 이름은 블루, 그린, 주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라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일정을 기대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지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떼어라, 런닝맨]

본격적으로 꿈 여행을 떠나기 위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지식봉사를 통해 만날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주제를 꿈 여행으로 잡았습니다. 둘째 날은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방식으

로 계속 진행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중간 중간 퀴즈를 내서 수업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답해주고 기본적인 직업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흥미를 못 느낄까 걱정했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 배운 직업 수업을 토대로 각 팀에 직업의 특성을 힌트로 주고 지정된 직업 찾아서 이름표를 떼는 런닝맨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센터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런닝맨 게임을 이용하니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여름이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판을 맡아서 중간에 계속 서 있었는데 저도 함께 뛰고 싶었습니다. 이름표를 가져와 "이거 맞아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정답 이름표를 가져온 팀은 그린 팀이었습니다. 우승팀에는 상이라고 적힌 메달을 걸어줬는데 이 부분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1등 팀에만 메달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잘했다고 말해야 했 습니다. 메달을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는 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에 멘토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눠준 이름표를 챙기며 나중에 또 이름표 떼기를 하겠다며 신난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아쉬운 이별]

마지막 날은 센터를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준비해 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틀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생각해봤다면 마지막 날에는 20년 후의 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을 직접 생각해봐서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20년 뒤에 이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타임캡슐도 준비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나눠주고 조용한 노래도 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쓸지 몰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다들 진지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게 읽어보라고 보여준 아이들도 있지만 안 보여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간 센터 주변이 공사 중인 곳이 많아 캡슐이 묻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따로 보관해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 이 편지를 보면 지식봉사활동을 진행한 저희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캠프를 마무리 지을 마지막 활동은 4일간 함께 한 나눔지기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롤링페이퍼였습니다. 6장의 색지에 저희의 이름을 쓰고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용을 쓸 동안 저희도 아이들에게 줄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 헤어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한 사람씩 인사도 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인사한 후 다음에 놀러 오겠다고 말하면서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쓴 롤링페이퍼를 보았습니다. 감사했다는 말을 보니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두 가지, 인연과 성장]

지식봉사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크게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00지역 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인연을 얻었습니다. 그냥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짧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멘토링 캠프를 기획하여 진행해 본 경험은 특별하고 그 속에서 만난 아이들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저의 바람대로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함께 캠프를 만들어 간 동료들 만났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처음 본 사람도 있었습

4. 우수사례



니다. 이번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좋은 팀워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부분을 확실히 처리해주고 각자의 능력이 잘 발휘되어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으며 어떤 팀보다도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한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란 사람이 지식봉사활동을 통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꿈에 관해 얘기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신 있게 무엇 가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모습이 화가 되겠다고 말했던 어린 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꿈이 달라졌지만, 그때의 마음 그대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 없어 하던 아이들이라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꿈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과 격려의 가치, 새로운 사람들을 얻으면서 저도 내면적으로 한 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인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봉사캠프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멘토링을 할 기회는 많지만, 지식봉사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손으로 준비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전달하고자 했던 꿈이라는 주제는 그 단어만 들어도 두근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지기가 되어 아이들의 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고 아이들의 꿈 이야기에 저희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활동은 끝났지만, 아직도 여운이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들과 한 번 더 지식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수기 분야

- 제목 : “온점”에서 “섬표”로
- 수상자 : 단국대학교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학과 김민지

장려상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 나는 이제까지의 쳇바퀴처럼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따분하기 그지없는 ‘온점’인 내 삶에 ‘섬표’를 찍기 위하여, 겨울방학 때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지, 책을 읽을지 고민하던 찰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떠올랐다. 그는 누구와 비교하여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항상 타인을 돕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문득 그가 떠오른 건 왜일까? 나도 그와 같은 의미 있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많은 봉사 활동을 보던 중 한국 장학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식 봉사 캠프를 발견하였고, 나는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를 신청하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지만, 과연 내성적인 내가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생겼다.

첫째 날 가장 인상 기억에 남는 활동은 조 편성이었다. 캠프 진행 방식은 2~4명의 배움지기와 가르침을 주는 한 명의 나눔지기로 구성되어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조는 총 2명, 아영(가명)과 주환이(가명)가 있었다. 웃음이 많고 분 단위로 앞머리를 빗는 아영과 안경을 습관처럼 올리는 주환이 이것이 아이들의 첫인상이었다. 그렇게 조가 구성되고 팀명을 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다. 서로 어색하여 뽀뽀거리다가 아영이가 “선생님 포르투갈어를 공부한다 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건배~ 라는 뜻인 싸우지 어때요?”라고 하며 내 마음을 두드렸다. 비록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큰 고마움으로 다가왔고 또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용기를 아영이 준 셈이다. 그렇게 우리 조 이름은 “싸우지”가 되었고 역량을 연습하면서 셋이서 장난도 치며 친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날 가장 뜻 깊었던 활동은 ‘대학 진학 프로그램 속 나눔지기와 배움지기와와의 진실 된 소통’이었다. 이번 시간에 아영이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오지 못하여, 주환이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주환이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을 4시간으로 줄이면서까지 공부를 하는데도 수학 성적에는 진전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마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에 애를 먹었던 시간이 있었다.

수학은 기초가 없이 문제만 쌓아 올리면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주환이에게 해줄 수 있는 수학 공부에 관한 이야기와 교재를 추천해주었다. 더불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공부하라고 말하였다. 주환이는 내가 하는 말을 옮겨 적으며 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다음 날 정말 중학교 과정 수학 문제집을 사 온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서 있어서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진심 어린 말은 다른 사람을 경청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셋째 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일대일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 해결을 맡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고 공감되었던 고민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민이었다. 마치 수능을 마친 뒤 내 모습과 같았다. 우리 집은 국가에서



4. 우수사례



차상위 계층이라고 국가에서 명시할 만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 정말 간절하게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집안 사정이라는 갈등의 시소를 타던 중 한국장학재단을 알게 되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할 시간을 줄이면서 하고 싶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직전 학기에는 수석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국가 장학금 덕분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그 아이의 고민을 덜어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과 응원을 해주려면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진심이라는 '알맹이'없이 '괜찮아!', '힘내' 즉 '빈껍데기'와 같은 이야기는 누구나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나의 진심이 통하였나 보다.

고맙다는 메시지가 무려 4통이나 왔다. 작은 표현일지 몰라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나와 했던 상담 이야기를 한번 되새기고 또 거기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뿌듯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배움지기에게만 만 아니라 우리 나눔지기에게도 배울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마지막 날에 진행하였던 '롤링페이퍼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의미가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지식봉사 캠프를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을까?'라며 나눔지기들끼리 고민하며 만든 프로그램이다. 수련화, O.T(Orientation) 등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롤링페이퍼와 나의 형식적인 문구들이 생각이 났다. '다섯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캠프를 통해 값진 무엇인가를 얻어 가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색깔 펜, 형광펜까지 동원해 가며 종이에 자신들의 마음을 적어 내는 걸 보며 귀여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우리 "싸우지 조"의 아영이와 주환이가 나에게 부끄러운 미소와 함께 "선생님 선물! "하며 선물을 건네주었다. 흘려보내는 말로 '손이 뒹다.', '컵을 하나 사야겠다.' 했던 말들을 잊지 않고 사온 것이다. 내가 하나같이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물건들을 받은 터라 기분이 좋았지만, 선물보다 더 값졌던 건 아이들의 예쁜 마음씨가 담긴 편지였다. 나의 첫인상에 대해서도 쓰여 있었고, 내 덕에 문화 상품권을 많이 탔다는 내용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푸니까 빠져있던 벽돌의 지식이 채워지는 느낌이라는 말들까지. 나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 가슴을 찡찡거리게 되었다.

아이들이 쓴 롤링 페이퍼를 본 순간 나의 마음은 다시 출렁였다. 늘 나 자신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였던 나에게 '선생님은 이야기보따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라는 말, 굵고 쉼 목소리가 콤플렉스였던 나에게 많은 아이가 '선생님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목소리가 제 취향 저격이에요!'라는 말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민지 선생님 같이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요.'와 같은 말들을 해주었다. 난 캠프를 통해 나의 콤플렉스였고 숨기고 싶었던 단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생각해주고 아이들 덕분에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되었던 내 삶은 완전히 온점에서 침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침표가 되길 바랐다.

지식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나눔지기 친구들과도 개인적으로 메시지만 아니라 SNS로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에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싸우지 조" 아영이, 주환이 와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며, 이번 여름방학에는 셋이서 서울 구경을 하기로 약속도 했다. 우리는 그저 나눔지기와 배움지기의 사이가 아닌 기막힌 타이밍에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등장해준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이다.

지식봉사캠프를 통해 나는 나눔지기로서가 아닌 배움지기로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배웠다. 주변 지인들이 캠프 활동이 어땠느냐고 물어 보면 나는 항상 '아이들이 명품 학생이라서 내가 도리어 배우고 왔어!'라고 대답한다.

나와 아이들 즉, 우리라는 문장은 지금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침표인 관계이다. 이 문장에 온점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만일 온점이 찾아온다면 아마 우리 문장의 새로운 출발점일 것이다. 이렇게 단락이 되고 멋진 글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아영, 주환 그리고 모든 지식봉사캠프에 참가한 00 여고 친구들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 이젠 언니가 힘들고 캄캄한 입시라는 터널 속에서 멘토라는 등불이 되어 너희 길을 비춰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걸어가자! 어둠이 오면 별을 찾으면 되고 비가 오면 무지개를 같이 찾자!"

캠프를 통하여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눔지기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진실과 경험이 바탕이 된 "대화"이다. 또한, 대화를 통한 깨달음은 거창한 조언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다. 지인들에게 가장 보람찬 프로그램이라고 권유해 보고 싶고 꼭 다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4. 우수사례

포스터 분야



〈최우수상〉

- 제목 : 강한 멘토링은 강한 경험을 낳는다.
- 수상자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전양우

최우수상

주제 : 지식봉사의 소중한 경험

설명 : 대학생 지식봉사캠프도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대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나눔을 행한다는 것이 캠프의 주된 목적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봉사자 자신에게도 큰 경험과 배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즉 봉사하면서 나눔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포스터를 보면 밝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춰지고 있다. 나눔의 시간이 봉사자 자신에게도 강한 경험이 되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 그 경험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을 그림자처럼 흑백으로 처리함으로써 표현하였다.



〈우수상〉

- 제목 : 도담도담, 함께 자라는 우리
- 수상자 :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하지은

우수상

주제 : 멘티, 멘토가 함께 자라는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

설명 :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갖고 있지만 이를 잘 접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학생 지식봉사캠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즐기며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터에서 '대학생 지식봉사캠프는 배우는 학생뿐 만 아니라 멘토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고, 최종적으로 그에 맞는 사진과 이미지로 포스터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장려상〉

- 제목 : 우리 = 나눔 + 채움
- 수상자 :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오은하

장려상

주제 : 멘티, 멘토가 함께 자라는 대학생 지식봉사 캠프

설명 : 대학생 지식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들과 멘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를 통해 나눔과 배움의 주체가 계속 바뀌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포스터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뮤지컬'이라는 소재로 멘티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미술, 음악, 창작 등 정말 다양한 체험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 체험들을 받아내는 손과 함께 일러스트로 나타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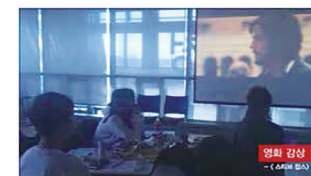
UCC 분야

- 제목 : 창의력을 키우는 96시간의 여행
- 수상자 : 숙명여자대학교 SMID(정지은, 김수경, 박우진, 이유진, 한지원)

최우수상

주제 :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자

설명 : 우리 캠프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주요 교과목 위주로 치중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것을 보완해주고자 다섯 명이 모여 기획한 캠프이다. 아이들이 잠시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우정과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나를 사물로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로고와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고 시각을 확장했던 96시간의 과정을 2분 59초의 영상으로 담았다.



〈최우수상〉

4.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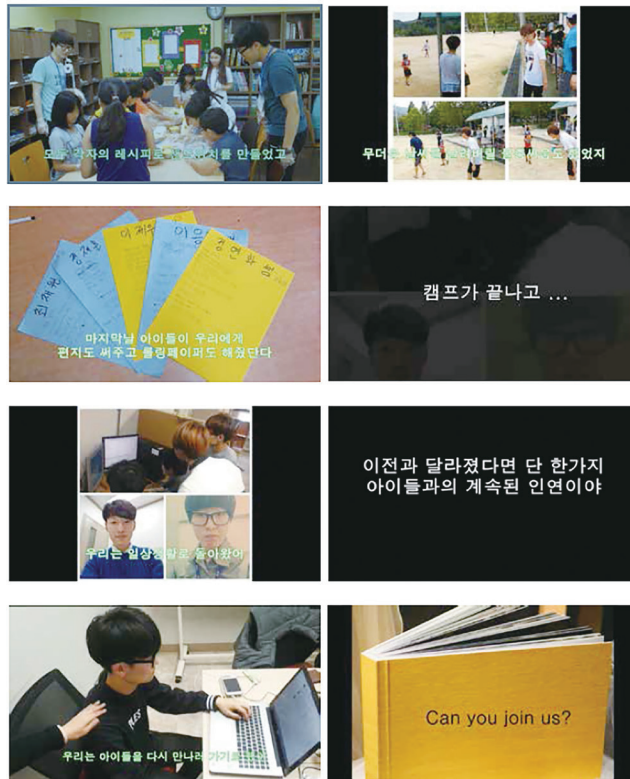
UCC 분야

- 제목 : 응답하라 5인 13색
- 수상자 : 영남대학교 리멤버 5인 13색
(최재원, 이응재, 정재훈, 이제우, 정연화)



주제 : END 아닌 AND

설명 : 먼저, 지시공사를 통해 배움지기들뿐 아니라 나눔지기들 또한 캠프 간에 배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타 봉사활동과는 달리 캠프를 통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참여가 가능한 나눔지기만의 이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수상〉

- 제목 : 꿈 앞의 아이들
- 수상자 : 경기대학교 파스텔(박상현, 박세연, 김경록, 김선재, 이새롬)



설명 : 4박 5일 동안 6명의 대학생이 영춘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꿈에 대한 생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며, 우리가 초등학생 때 꿔던 꿈과 그때 생각했던 20대가 돼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일까, 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3분 UCC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꿈은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야 한다는 어느 예술가의 말처럼, 우리도 항상 아이처럼 순수하게 꿈에 대한 열정을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장려상〉

chapter 06.

FAQ



FAQ



Q 1. 나눔지기(멘토)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대학생 지식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생(휴학생도 참여 가능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서울),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나사렛대, 단국대(죽전, 천안), 대구대, 동국대(경주, 서울),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안동대, 연세대(신촌, 원주), 영남대, 용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서울), 진주교대, 추계예술대, 춘천교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대(글로벌, 서울), 한동대, 한양대(서울, 에리카), 홍익대(서울, 세종) ※ 나눔지기(멘토)는 소속 대학 확인 시 대학별 캠퍼스 구분 확인 요망

Q 2. 대학생들은 지식봉사활동 참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소속 대학 담당 부서로 참여 신청 후 팀 단위로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캠프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Q 3.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수혜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A 수혜기관을 모집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참여 수혜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캠프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단에서는 제13기(하계방학) 지식봉사사업 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혜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참여 수혜기관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팀은 참여 수혜기관 목록을 확인하여 캠프를 진행하고자 희망하는 수혜기관에 연락을 한 후, 캠프 진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 다음 캠프계획서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또는 나눔지기) 자체적으로 참여 수혜기관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캠프계획서 제출 시 수혜기관의 캠프신청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4. 수혜기관과 협의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나눔지기들은 캠프 일정 및 내용 협의를 위해 수혜기관 담당선생님께 연락하는 하는 경우, 예의를 갖추어 연락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자기소개와 함께 통화가능 여부를 여쭙고 진행하되,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화 가능한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며,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캠프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나눔지기 팀별 사전 준비를 필수로, 배움지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혜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합니다.

Q 5. 캠프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캠프계획서는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배포된 양식의 운영계획서(엑셀파일)과 프로그램계획서(한글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종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Q 6. 캠프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캠프는 4일~6일은 최소 30시간 이상, 7일 이상의 캠프는 최소 50시간 이상의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이동시간은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캠프는 기본적으로 '상호소개', '학습지도', '진로 및 고민상담', '특별활동', '예체능활동' 등 배움지기(멘티)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지는 각 캠프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되, 배움지기(멘티)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랑 내용을 바탕으로 배움지기 맞춤형 방학 캠프를 위한 나눔지기(멘토)들의 성실한 준비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Q 7. 활동완료 나눔지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4일~6일은 30시간 이상, 7일 이상의 캠프는 5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으로, 사전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활동인정 이 불가하며, 활동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 지급된 경우 반환 필수)

FAQ



Q 8. 사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수강하나요?

A 사전교육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운영하는 오프라인 사전교육은 시간 단위로 최대 2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운영방식, 필수참석 여부 등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단, 온라인 사전교육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9. 회원 ID는 왜 필요한가요?

A 재단 홈페이지 회원ID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ID를 말합니다(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함). 이는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권한 및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합니다.

Q 10. 수혜기관으로 이동 시 렌터카 혹은 자가 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캠프 이동 간 렌터카 혹은 자가 차량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혹은 자가 차량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 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캠프에 필요한 물품들은 가급적 수혜기관 인근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물품들을 수혜기관에 우편으로 배송할 경우, 우편 배송료도 캠프 지원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11. 참여 대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나눔지기(멘토) 중 활동완료자에 한해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며, 재단 이사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추후 재단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인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사례 공모(수기, UCC, 포스터) 및 시상을 통해 우수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Q 12. 지원 사항 중에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이란 무엇입니까?

A CEO 등 사회지도자 나눔지기(멘토)와 재단이 선정하는 우수 대학생 배움지기(멘티) 간의 멘토링을 통해 배움지기(멘티)의 꿈과 열정,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나눔지기(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 '기업현장 방문', '멘토링 활동', '리더십 콘서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Belle R(1997) Diversified Mentoring Relationship in Organization: a Power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no2 Caruso, R. (1992), Mentoring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in Bradley, K. (Eds), Human Resource Management: People and Performance, Dartmouth Publishing, Aldershot, pp.64-73.

Connor et al (2000) Developing senior doctors as mentors: A form of b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Report on an initiative to develop a network of senior doctors as mentors 1994-99. Medical Education 34: 747-53.

Conway, C. (1995) Mentoring managers in organizations. Equal Opportunities International, 14, 1-52. Cranwell J et (2004) Monitoring, A henley revies of best practice, Palgrave Macmillan David Clutter buck(1991) Everyone needs a mentor,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 Development, Orient Longman Limited Egan, G. (2002)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nd opportunity-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Pacific Grove, Calif.: Brooks/Cole. Mathisen, P. (2008). Mentor. Om mentoring i teori og praksis. Mentor.

Mentoring theory and practice. Bergen: Fagbokforlaget. Michael B (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in the preceding volume, p.7-15 Raymond A (2002) Mentoring: What we know and where we might Go,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21: 129~173

Robins, M (2003) the good teacher mentor: Setting the standard for support &succes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Rolfe-Flett, A (1996) Tailor made mentoring for organizations, Kincumber South, N.S.W.

김혜원 외 (2010),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공동체

강차연 외 (2010),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교문사

마고로이스 J 자카리 (2009) 멘토와 멘티, 장여경 역, 스마트비즈니스

마이클 J. 마퀴트, 피터 론 (2006) 멘토, 원은주 역, 가치창조

머레이 (2005)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김영사

엘렌 앤 셔 & 수잔 퍼피 (2010) 파워멘토링, 한유미·손미경 역, 아카데미 북

캐슬린 바튼 (2007), 멘토 네트워킹, 황혜선 역, 가치 창조

http://www.12manage.com/methods_mentoring_ko.html

http://www.seri.org/kz/kzMainL.html?g_menu=03&s_menu=0300

https://www.st-andrews.ac.uk/media/Mentoring_Handout_05-06.pdf.

<http://www.icareinfo.info>